

# 이태준 『문장강화』(1940) 연구

## - 문범의 출전을 중심으로 -

야나가와 요스케\*

### 〈차 례〉

1. 들어가며
2. 1930년대 이태준의 삶과 「글 짓는 법 ABC」
3. 문범의 출전을 통해 본 『문장강화』
4. 나오며

### [국문초록]

이 글은 1930년대 이태준의 문장 인식을 논의하기 위한 예비 작업으로 「글 짓는 법 ABC」와 『문장강화』의 특징과 수록된 문범의 출전을 분석하였다. 2장에서는 이태준의 조선훈어 교육과 「글 짓는 법 ABC」의 문체 출전을 확인하였다. 그 동안 이태준과 조선훈어학회의 관계는 표준어 사정 작업을 중심으로 논의되었지만 사정 위원회 활동은 신문사 학예부장을 역임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글 짓는 법 ABC」의 문체는 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이유는 시가 개인마다 다른 감각을 가장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3장에서는 『문장강화』에 인용된 문범과 동서양 문예 비평문의 출전을 확인하였다. 「글 짓는 법 ABC」와 대조적으로 『문장강화』의 문체는 소설과 기행문을 비롯한 산문 위주로 구성되었다. 문범의 출전은 각종 전집 및 선집에서 인용된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이태준은 단행본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기간행물에서도 작품을 적극적으로 인용하였다. 이처럼 문범의 출전을 확인하는 작업은 서지학적 의미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태준의 문장 인식을 종합적으로 해명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주제어] 이태준, 「글 짓는 법 ABC」, 『문장강화』, 『문장』, 조선훈어학회, 표준어 사정 위원회

\* 사이타마 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 1. 들어가며

이 글은 상허 이태준의 문장 인식을 조명하기 위한 예비 작업으로 『문장강화』(1940)의 특징과 수록된 문법의 출전을 분석하고자 한다. 『문장강화』는 총 아홉 강으로 구성된 문장론이자, 문장 작법의 의의와 언어 문제, 운문과 산문, 각종 문장의 요령, 퇴고, 표현 방식, 각종 문체, 문장의 역사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장론이다. 『문장강화』에 대한 관심은 작가론적 차원을 넘어 근대 작문의 계보와 근대 한국어의 형성 과정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문장강화』는 전문학교 작문 강사로 오래 근무한 이태준의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집필된 문장론이다. 1930년대 초부터 이태준은 창작과 동시에 이화여자전문학교와 경성보육학교 등으로 출강하여 조선어 작문과 동화 창작법에 관한 강의를 담당하였다. 경성보육학교 강의록은 「글 짓는 법 ABC」(1934.6~1935.1)로 잡지에 연재되었고 일부 작품은 『문장강화』에서도 그대로 사용되었다. 「글 짓는 법 ABC」에 비하여 『문장강화』는 분량이 대폭 증가하였고 논리 구조도 체계화되었는데, 중복된 예문들은 문장 인식의 변모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것이다. 해방 후에는 개정판으로 『증정 문장강화』와 『신문장강화』가 출간되었지만<sup>1)</sup> 이 글은 식민지 시기에 발표된 『문장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글 짓는 법 ABC」와 『문장』에 연재된 「문장강화」, 단행본 『문장강화』를 논의하고자 한다.<sup>2)</sup>

『문장강화』에 관한 수많은 선행연구 중에서도 참고문헌과 관련된 논의로 배개화, 문혜윤, 구자황, 박진숙의 논문을 들 수 있다. 일찍 배개화는 『문장강화』에 인용된 후스(胡適)의 「문학개량주의」가 「건설적 문학혁명론」의 오류임을 지적하였고<sup>3)</sup> 문혜윤은 후스가 주장한 팔불주의(八不主義) 가운데 여

1) 『증정 문장강화』와 『신문장강화』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조. 이혜령, 「이태준 『문장강화』의 해방 전/후 - 그 역사적 콘텍스트를 중심으로」, 상허학회 편, 『이태준과 현대소설사』, 깊은샘, 2004; 박진숙, 「『신문장강화』의 시간과 이태준」, 박진숙 엮음, 『신문장강화』, 현대문학, 2009.

2) 이하 잡지 연재본의 경우는 「문장강화」라고 쓰고 단행본의 경우는 『문장강화』라고 쓰고자 한다.

3) 배개화, 『한국문학의 탈식민적 주체성 - 이식문학론을 넘어』, 창비, 2009, 243쪽.

덟 번째 주장에 관한 오역을 지적하였다.<sup>4)</sup> 『문장강화』에 나타난 어휘에 주목한 구자황은 제8장에서 사용된 한자어가 중국의 『이십사시품(二十四詩品)』에서 따온 사실을 밝힌 한편, 『문장강화』를 이가라시 치카라[五十嵐力], 다니자키 준이치로[谷崎潤一郎], 구메 마사오[久米正雄], 기쿠치 칸[菊池寛] 등 일본의 문장론과 비교하면서 근대 작문의 계보 속에 자리매김하기도 하였다.<sup>5)</sup> 일본의 문장론과 관련하여 박진숙은 『문장강화』 제8장에서 제시된 문체 구분 방식이 시마무라 호게쓰[島村抱月]의 『신미사학(新美辭學)』과 동일하며, 이가라시의 『문장강화(文章講話)』 및 『신문장강화(新文章講話)』로부터 전반적인 체제, 실용적 글쓰기 등에 관한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다.<sup>6)</sup>

『문장강화』 수록 작품과 관련하여 문혜윤은 첫 발표 지면을 중심으로 출전을 정리하며, 일부 예문이 「글 짓는 법 ABC」와 중복된 점을 밝힌 바 있다.<sup>7)</sup> 구자황은 『문장강화』에 실린 예문이 이윤재 편 『문예독본』(1931·1933)에서 다수 인용된 사실을 지적하였다.<sup>8)</sup> 『문예독본』은 이윤재가 자신의 한글 철자법에 의거하여 교정을 본 독본이며, 시와 시조, 소설, 수필, 감상문, 기행문 등 총 43편이 수록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글 짓는 법 ABC」와 『문장강화』가 연속선상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지만 연재본 「문장강화」와 단행본 『문장강화』 사이에도 부분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문장강화』 연구는 출발점에 해당하는 「글 짓는 법 ABC」와 연재본 「문장강화」를 전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문장강화』의 특징과 이태준의 문장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2장에서는 1930년대 이태준의 삶과 「글 짓는 법 ABC」에 대하여 논의한다. 선행연구에서 「글 짓는 법 ABC」에 대한 연구는

4) 문혜윤, 「조선어 문학의 역사 만들기와 '강화(講話)'로서의 『문장』」, 『한국근대문학연구』 20, 한국근대문학회, 2009, 53쪽.

5) 구자황, 「근대 작문의 계보와 이태준의 『문장강화』」, 『한민족문학』 71, 한민족어문학회, 2015.

6) 박진숙, 「이태준 문학 연구 - 텍스트와 내포독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148쪽; 박진숙, 「이태준의 언어의식과 근대적 글쓰기의 場」, 『한국근대문학연구』 23, 한국근대문학회, 2011, 66~76쪽.

7) 문혜윤, 『문학어의 근대 - 조선어로 글을 쓴다는 것』, 소명출판, 2008, 270~274쪽; 문혜윤, 「조선어 문장 형성 연구의 방향 - 『문장강화』 연구사」, 『상허학보』 42, 상허학회, 2014, 95쪽.

8) 구자황, 앞의 글, 489~490쪽.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태준의 초기 문장 인식을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어서 3장에서는 『문장강화』의 형성 과정을 문법과 인용된 동서양 문예 비평의 출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1930년대 이태준의 삶과 「글 짓는 법 ABC」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1930년대 이태준의 삶과 조선어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찍 「오몽녀」(1925)로 등단한 이태준은 1930년대 내내 왕성한 창작 활동을 펼쳐 많은 독자를 가진 작가로 알려져 있다. 당시 조선 작가들은 문필 활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언론사나 교육기관에 근무하면서 창작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태준 또한 개벽사, 신생사, 중외일보사 기자와 조선중앙일보사 학예부장으로 근무한 한편, 1930년대 후반에는 춘산 김연만의 경제적 지원으로 문장사를 창립하여 『문장』을 주간하고 출판 사업에 종사하였다. 기자 생활과 잡지 편집 외에 이태준은 오랫동안 전문학교에서 조선어 작문 강사를 지냈고 이화여자전문학교(이하 이화여전) 박물관 주임으로 소장품을 관리한 적도 있다.<sup>9)</sup> 특히 조선어 작문 강사를 지낸 점은 이태준의 문장론이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식민지 조선에서 강사 또는 교수 경력을 가진 문인으로 이태준 외에 이병기(휘문고보), 정지용(휘문고보), 김상용(이화여전), 유진오(보성전문), 이효석(숭실전문)을 들 수 있다. 그중에서 조선어 관련 과목을 담당한 문인은 이태준과 이병기가 거의 유일하였다.<sup>10)</sup> 따라서 식민지 시기 이태준의 조선어 인식을 논의하는 데 있어 강사 경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이태준의 작문 강사 경력에 대해서는 1930년대 초부터 중반

9) 야나가와 요스케, 「이태준과 도자기 - 일본어 수필 「破片のな話(파편적인 이야기)」와 성북동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51, 상허학회, 2017, 202~204쪽.

10) 정지용과 김상용, 이효석은 영어 및 영문학을 담당하였고 유진오는 법학 관련 과목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선어학회를 주도한 이희승(이화여전), 김윤경(배화여고), 최현배(연희전문) 등은 학교에 봉직하여 조선어 작문 또는 문학을 가르치면서 학술운동을 전개하였다.

에 걸쳐 이화여전, 이화보육학교, 경성보육학교에서 작문을 가르쳤다는 사실만 막연하게 알려져 왔다.<sup>11)</sup> 이태준은 이화여전에서 이희승과 문과 학생을 상대로 조선어 작문을 가르쳤고 모운숙, 노천명, 이선희를 비롯한 문인을 다수 배출하였다. 이들은 재학 당시 교지 『이화』에 작품을 발표하면서 문필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당대 ‘여성 작가’ 작품을 엮은 『현대조선여류문학선집』(1937)에 수록된 작가 15명 가운데 절반은 이화여전 문과 출신자가 차지하였다. 경성보육학교에서 이태준은 보육교사 지망생에게 작문 과목 외에 동화 작법도 가르쳤고 그의 아내이자 이화여전 음악과를 졸업한 이순옥도 음악 교사로 출강하고 있었다.<sup>12)</sup> 이화보육학교에서도 이태준은 유사한 과목을 맡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1929년부터 『어린이』에 작품을 다수 발표하였고 아동문학가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는 동화 창작법을 교수할 수 있었다. 상술한 강의 경험은 단순한 부업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작가 이태준으로 하여금 조선어 작문 교육의 중요성과 조선어 문장의 역사에 대하여 의식하게 하였다.

이태준은 수필 「남의 글」(1935)에서 작문 강사로 일하는 괴로움을 “남의 눈에 든 티는 보면서 어찌하여 네 눈에 든 대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는 마태복음 7장의 한 구절을 들어 토로한다.<sup>13)</sup> 자기가 쓴 글이면 뚜렷하게 잘못된 동사 하나를 바로 집어내지 못하면서도 남의 글을 채점할 때는 부사 하나라도 잘못하면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한다. 이태준에게 작문을 채점하는 일이란 ‘가장 불유쾌한 의무’이며, 명확한 정답도 없는 작문의 점수는 ‘영원히 불정확한 가점수(假點數)’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등수를 매기거나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는 등단 제도와 달리 특히나 학교 교사에게 요구되는 일이었

11) 상허학회 편 『이태준 전집』(소명출판)의 「작가 연보」를 보면 “1932 이화여전(1932~1937), 이화보육학교, 경성보육학교 등 학교에 출강하며 작문을 가르침”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이태준은 적어도 1941년 가을까지 이화여전에서 근무한 것으로 추정된다. 『삼천리』 1941년 9월호에 실린 「지상문화강좌(이화여자전문 교수진)」 특집에서 이태준은 ‘이화여전 강사로 「문장 구성의 특질」을 기고하였다. 「문장 구성의 특질」은 『문장강화』 제1장의 일부 내용을 그대로 옮긴 글이다.

12) 야나가와 요스케, 「이순옥·아동문학·개성(開城) - 1930년대 이태준의 삶과 그 주변」, 『상허학보』 54, 상허학회, 2018, 295~300쪽.

13) 이태준, 「남의 글」(『학등』, 1935.12), 『무서록』, 박문서관, 1941, 177쪽.

다. 이화여전의 강의 풍경에 대한 자료로 문과 1학년 학생인 최정순이 쓴 소품 「작문 시간」(1938)을 들 수 있다.<sup>14)</sup> 「작문 시간」은 ‘긴 다리’를 가진 작문 교사가 채점을 마친 원고지 중 소개할 만한 작품을 뽑아 칠판에 적는 동안 초조하고 긴장한 학생들의 모습을 포착한 글이다. 이 교사가 이태준을 카리키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교사가 설명을 시작하자 학생들은 칠판에 적힌 작품의 저자와 평가를 궁금하여 하는 강의실 풍경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이처럼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작문 수업은 진행되었다.

다음으로 이태준과 조선어학회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태준과 조선어학회의 관계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하 통일안)」(1933) 공표 이후 조선어 표준어 사정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출발한다. 이태준은 조선어 표준어 사정위원회 위원으로 제1독회(1935.1)와 제2독회(1935.8)에 참석하였으나 선행연구에서 이태준의 사정 위원 취임과 그 배경에 대하여 별다른 의미 부여가 없었다.<sup>15)</sup> 그러나 필자는 이태준의 사정 위원 취임을 신문사 학예부장이라는 직책 덕에 가능하였다고 본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언론사와 전문학교에 근무한 경우가 대부분이며,<sup>16)</sup> 동아일보사에서 서항석이 참여하였고 조선일보사에서는 안석주와 함대훈이 참여하였다. 관련 기사를 보면 이태준은 ‘조선중앙일보’ 사원으로 참여하였고 제1독회에 앞서 서항석, 함대훈 등과 전형위원을 구성하기도 하였다.<sup>17)</sup>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전형 위원은 신문사 학예부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조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실

14) 최정순, 「작문 시간」, 『조선일보』, 1938.11.21. 최정순은 소설가 최정희의 동생이자 1940년 전후 이화여전을 중퇴하고 일본의 문화학원 미술부에서 수학한 인물이다. 「칸바스에 꿈이 있다!! 화단 상륙 삼 보전」, 『조선일보』, 1940.1.12. 이화여전 재학 당시 최정순이 발표한 글로 「작문 시간」 외에 「비 개인 아침」(『매일신보』, 1939.4.16)도 있다.

15) 『한글학회 100년사』, 한글학회, 2009, 469~476쪽. 이태준과 조선어 표준어 사정위원회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에서 간략하게 언급된 바 있다. 홍기돈, 「형극(荊棘)의 시대, 지사의 길」, 『작가세계』 71, 세계사, 2006. 겨울, 29~31쪽; 문혜윤, 앞의 책, 168쪽 각주 4번.

16) 「조선어 학회 주최 표준어 사정 이독회」, 『한글』 3-7, 1935.9, 9쪽. 이태준 외에 언론계 또는 교육계 인사이자 문인으로 조선어 표준어 사정위원회에서 활동한 인물은 다음과 같다. 김동환(삼천리사), 서항석(동아일보사), 안석주(조선일보사), 염상섭(매일신보사), 차상찬(개벽사), 함대훈(조선일보사), 양주동(승실전문), 유진오(보성전문), 이병기(휘문고보) 등.

17) 「표준어 사정 위원회」, 『한글』 3-2, 1935.2, 19쪽. 이 밖에 전형위원은 정인섭(연희전문)과 방신영(이화여전) 등 전문학교 교수가 맡았다.

제로 이태준은 1934년 7월 조선중앙일보 학예부장에 취임하여 이상과 박태원의 작품을 과감하게 연재하였다가 1935년 5월경 창작 활동에 집중하기 위하여 학예부장직을 사임하였다.<sup>18)</sup> 사임 이후에도 이태준은 표준어 사정 위원직을 계속하면서 『조선중앙일보』에 『성모』와 『황진이』를 연재하였다.

이 무렵 한성도서주식회사(이하 한성도서)에서 이태준의 첫 단편집 『달밤』(1934)이 출간되었다. 일부 연구자는 『달밤』과 이태준의 조선어학회 활동을 연결 지어 발행처인 한성도서의 광고 전략과 한글 표기 문제를 논의하기도 하였다.<sup>19)</sup> 공통적으로 『달밤』이 통일안 공포 이후에 출간된 점을 중요시하였는데, 통일안과 인쇄소 및 출판사, 그리고 문학계가 밀접하게 연관된 당시 상황과 『달밤』이 놓인 자리를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통일안에 반대하는 일부 세력에 대하여 1934년 7월 이태준을 비롯한 문단인 78명은 공동으로 「한글 철자법 시비에 대한 성명서(이하 성명서)」를 발표하여 조선어학회와 통일안을 전면적으로 지지하였다.<sup>20)</sup> 여기서 말하는 반대 세력이란 1934년 6월 말 조선어연구회가 따로 조직한 조선문 기사 정리 기성회를 가리키는데,<sup>21)</sup> 이들에게 위기감과 위화감을 느낀 일부 문단인이 성명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 성명서는 이태준과 이은상, 그리고 김기진을 중심으로 작성되었고 처음에는 집회 개최를 모색하다가 결국 성명서만 발표하게 되었다고 한다.<sup>22)</sup> 성명서에는 가장 큰 특징은 이들 외에 이광수, 김동인, 염상섭, 심훈, 이기영, 임화, 정지용, 박태원 등 카프 계열과 구인회에서 활동할

18) 야나가와 요스케, 「학예부장 시절의 이태준」, 『상허학보』 56, 상허학회, 2019, 644~645쪽.

19) 박진숙은 『달밤』에 관한 잡지 광고와 판매량, 통일안을 준수한 표기, 이태준의 표준어 사정 위원 활동에 주목하였다. 박진숙, 앞의 글, 2011, 62쪽. 한편 현순영은 「달밤」의 첫 발표 지면(『중앙』, 1933.11)과 단행본 『달밤』을 대조하여 표기법에 나타난 차이를 밝힌 바 있다. 현순영, 「구인회의 안과 밖」, 소명출판, 2017, 281~285쪽.

20) 「80여 명 문사 쫓겨 '한글' 지지를 절규」, 『동아일보』, 1934.7.10; 「문필가 쫓겨 철자법 반대 반격」, 『조선일보』, 1934.7.10. 성명서 전문은 일간지(『동아일보』, 1934.7.10; 『조선중앙일보』, 1934.7.10; 『조선일보』, 1934.7.11)와 『한글』(1934.9)에 게재되었고 후술하듯이 『문장강화』에 논설문으로 재수록되기도 하였다.

21) 「조선문 기사-정리 기성회 조직」, 『동아일보』, 1934.6.24; 「조선문 기사 정리 기성회 조직」, 『조선일보』, 1934.6.25. 조선문 기사 정리 기성회 또한 통일안에 대한 반대 성명을 작성하여 지지를 호소하였다.

22) 김필봉, 「문예 시사감」, 『삼천리』 6-8, 1934.8.

작가들 총 78명이 서명하였다. 따라서 이 성명서를 당대 문단의 총의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조선어학회 측에서도 문인들의 활동을 ‘문예가의 분투’로 호평하였다.<sup>23)</sup>

이처럼 조선어 표기를 둘러싼 논의가 오가는 상황에서 『달밤』은 출간되었다. 『달밤』은 조선어학회 기관지인 『한글』 「신간 소개」에서 “전편을 「한글 맞춤법 통일안」 그대로 되었으니, 소설을 읽는 한편에 통일안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즉 통일안을 준수한 출판물로 소개되었다.<sup>24)</sup> 이태준은 『달밤』 서문에서 이은상, 김진호, 김병제, 김용준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책머리에」를 집필한 이은상과 장정을 맡은 김용준은 1920년대 중반 이후 이태준과 친교를 맺은 인사들이었고 김진호는 발행처인 한성도서 지배인이자 『달밤』의 인쇄인으로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sup>25)</sup> 김진호에 대한 사시는 장편소설과 시집 위주로 문학 서적을 펴내던 한성도서가 과감하게 단편집 출간을 결심하고 장정도 저자에게 맡겼기 때문에 삽입된 것으로 추정된다.<sup>26)</sup> 이 밖에 김병제는 조선어학회 회원이자 표준어 사정위원을 역임한 인물로<sup>27)</sup> 『달밤』의 교정을 담당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른 출판물과 같이 『달밤』 수록 작품들도 표기를 통일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교정을 받아야 하였다. 다만 발행처인 한성도서가 출판과 인쇄를 병행한 점과 조선어학회 각종 출판물의 인쇄와 판매를 전문적으로 맡은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처럼 『달밤』은 저자만이 아니라 조선어학회와 통일안, 출판사와 인쇄소, 장정과 교정 등 각계 전문가들의 전면적인 협조로 출간된 작품집이었다.

23) ‘문예가의 분투’란 조선어 어문 정리의 역사를 회고한 글에서 이극로가 사용한 표현이다. 이극로, 「조선어문 정리 운동의 현상」, 『사해공론』 2-5, 1936.5, 66쪽.

24) 조선어학회 출판부는 『한글』과 각종 출판물을 펴낸 한편, ‘추천 양서’를 선정하고 당대 출판물의 통일안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도 하였다. 「본회 추천 양서」, 『한글』 3-2, 1935.2; 출판부 조사, 「마춤법 통일안과 출판물의 추세」, 『한글』 4-1, 1936.1.

25) 1936년 초 한성도서 10년 근속자(勤績者)를 표창한 기사에서 김진호는 지배인으로 나온다. 「한도십년 근속 사원 표창식」, 『동아일보』, 1936.1.1; 「한성도서 근속자 표창」, 『조선일보』, 1936.1.4.

26) 이태준은 김동인의 작품집 『감자』(1935)에 대한 서평에서 단편집이 장편소설보다 덜 팔리는 출판사정을 언급하고 있다. 상허, 「김동인 씨의 단편집 『감자』」, 『조선중앙일보』, 1935.3.14. 실제로 1930년대 전반기에 출간된 단편집은 『감자』 외에 이효석의 『노령근해』(1931), 최서해의 『홍염』(1931), 이태준의 『달밤』 등 몇 권에 지나지 않았다.

27) 『한글학회 100년사』, 한글학회, 2009, 61쪽.



「글 짓는 법 ABC」는 이태준이 전문학교 작문 강의를 맡으면서 『달밤』을 펴내던 무렵에 집필된 조선어 문장론이며, 1934년 6월부터 1935년 1월까지 조선중앙일보사 계열의 월간 『중앙』에 연재되었다. 이태준은 학예부장을 지내던 언론사 계열 매체에 문장론을 연재한 셈이다. 「글 짓는 법 ABC」는 「문장강화」와 『문장강화』로 이어질 이태준 문장론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텍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였다. 이 시기에 소설가가 쓴 문장론으로 『조선중앙일보』에 연재된 박태원의 「창작 여록·표현·묘사·기교」(1934)가 있다.<sup>28)</sup> 그러나 박태원의 글은 학생을 염두에 둔 조선어 문장론이라고 하기보다는 ‘창작 여록’이라는 제목에서 짐작되듯이 전문적인 문필가를 위한 기교론에 가까우며, 「글 짓는 법 ABC」와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 연재에 앞서 기사가 밝힌 대로 「글 짓는 법 ABC」는 경성보육학교 강의록이자<sup>29)</sup> 작문 강의라는 실천을 통하여 정리된 텍스트였다.

이태준의 「글 짓는 법 ABC」은 총 26장으로 구성된 조선어 문장론이다. 작문의 의의와 목적을 비롯한 총론부터 정신론, 문체론, 묘사 방법, 퇴고의 실제, 주제론, 한자 표기에 이르기까지 문장 작성을 위한 요령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글 짓는 법 ABC」의 인용된 문례의 출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글 짓는 법 ABC」 문례 출처<sup>30)</sup>

	저자	제목	출전
5장	이광수	「인생의 은혜와 사와」	『연등기』, 『대조』(1930.7)
	주요섭	「미운 간호부」	『신동아』(1932.9)
6장	정지용	「바람」	『조선동요선집』(1929)
8장	박월탄	「우소소」	『신생』(1930.7)
10장		「함남 북청에서 대포 호살」	『동아일보』(1932.1.5)
	최서해	「탈」	『신생』(1930.10)

28) 박태원, 「창작 여록·표현·묘사·기교」, 『조선중앙일보』, 1934.12.1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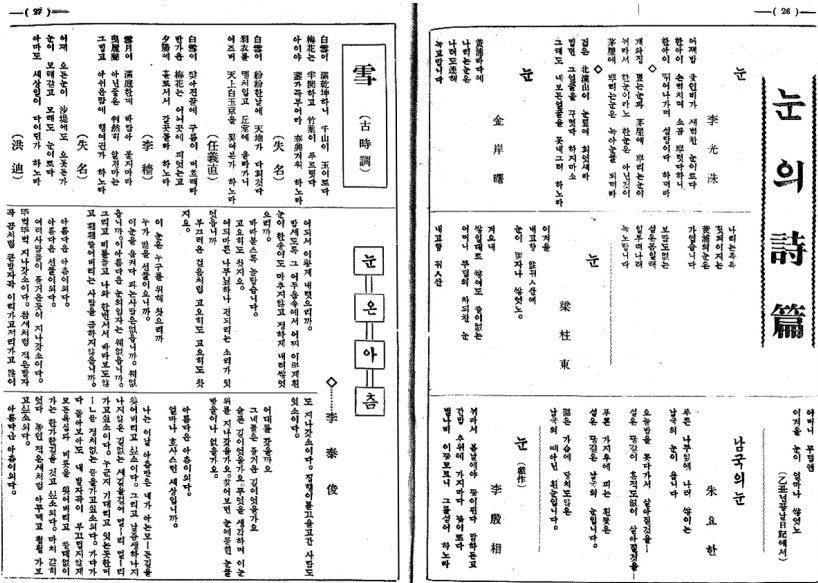
29) 이태준, 「글 짓는 법 ABC(1)」, 『중앙』 2-6, 1934.6.

30) 굵은 글씨로 표시된 작품은 『문장강화』에서도 문범으로 수록된 작품이다.

11장	방정환	『어린이 찬미』	『신여성』(1924. 6) 『신여성』(1931. 8) 『조선중앙일보』(1934. 5. 6)
12장	양주동	「눈」	『신생』(1930. 12) 『조선의 맥박』(1932)
	김소월	「오시는 눈」	『진달래꽃』(1925)
	이광수	「눈」	『삼인시가집』(1929), 『신생』(1930. 12)
	주요한	「남국의 눈」	『삼인시가집』(1929), 『신생』(1930. 12)
13장	이은상	「삼보경」	『노산 시조집』(1932)
15장	한용운	「나룻배와 행인」	『님의 침묵』(1926)
	노아자	「농촌 부료를 대하야」	『개벽』(1924. 8)
16장	이광수	『우덕송』	『조선문단』(1925. 1) 『문예독본』(1931)
17장	최득건	「그리운 시골 밤」	미상
18장	어떤 학생	『가을비』	미상
	어떤 학생	『가을비』	미상
	김동명	「즐거운 아침」	『나의 거문고』(1930)
	남궁벽	「풀」	『폐허』(1921. 1) 『조선시인선집』(1926)
	나도향	「병어리 삼룡이」	『여명』(1925. 7) 『현대평론』(1927. 8) 『여명문예선집』(1928)
19장	민태원	『청춘 예찬』	『별건곤』(1929. 6)
	양주동	「삶의 든든함을 느끼는 때」	『조선의 맥박』(1932)
20장	박팔양	「나그네」	『동아일보』(1924. 7. 7) 『조선시인선집』(1926)
	염상섭	『표본실의 청개구리』	『개벽』(1921. 8-10) 『건우화』(1924)
	이광수	『단종애사』	『동아일보』(1928. 11. 30~1929. 12. 11) 『단종애사』(1930)
	현진건	『지새는 안개』	『개벽』(1923. 2-10) 『지새는 안개』(1925)
21장	이광수	『의의 인』	『조선문단』(1925. 2) 『삼인시가집』(1929)
	남궁벽	「대지와 생명」	『폐허』(1921. 1) 『조선시인선집』(1926)

23장	이은상	「고향 생각」	『노산 시조집』(1932)
-----	-----	---------	----------------

「글 짓는 법 ABC」에 인용된 문례 총 30편 가운데 시와 시조가 14수로 가장 많으며, 수필 9편, 소설 4편, 작문 2편, 기사 1편이 뒤를 잇는다. 모든 문례에 저자와 제목이 명시되어 있는데, 시와 시조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목과 함께 출전에 해당되는 시집 제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김소월, 이은상, 한용운, 김동명, 양주동의 작품은 각각 『진달래꽃』, 『노산 시조집』, 『님의 침묵』, 『나의 거문고』, 『조선의 맥박』 등 개인 시집에서 인용되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시 작품에 대해서는 정기간행물과 시선집을 중심으로 출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림1] 「눈의 시편」(『신생』 3권 12호, 1930.12)

필자가 확인한 결과 출전 표시가 없는 시 작품 가운데 정지용의 동시 「바람」은 『조선동요선집』에만 수록된 작품이며,<sup>31)</sup> 남궁벽과 박팔양의 작품은 『조선시인선집』에 수록된 작품이었다. 한편 「글 짓는 법 ABC」 제12장 ‘내 것을

쓰자에 제시된 시 4수 가운데 3수는 『신생』 3권 12호(1930.12)에 ‘눈의 시편’으로 실린 작품과 동일하였다. 해당 지면을 확인한 결과 바로 다음 쪽에는 눈에 관한 고시조와 이태준의 수필 「눈 온 아침」이 실려 있었다. 따라서 이태준은 ‘눈의 시편’을 보관하다가 예문으로 인용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 한 주제를 읊은 여러 작품을 제시한 이유는 작가마다 눈에 대한 감각과 생각이 다르듯이 표현 방식도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참고로 나머지 1수는 김소월의 「오시는 눈」이며, 출전은 “『진달래꽃』에서”라고 명시되어 있다.

문례로 제시된 소설은 모두 연재를 거쳐 단행본으로 출간된 작품이었지만 수필의 경우는 『개벽』, 『신동아』, 『신생』, 『신여성』 등 주로 잡지에서 인용된 작품들이었다. 「글 짓는 법 ABC」에 인용된 문례에서 시를 제외한 16편 가운데 염상섭의 「표본실의 청개구리」, 이광수의 「단종애사」, 현진건의 「지새는 안개」와 주요섭의 「미운 간호부」, 방정환의 「어린이 찬미」,<sup>32)</sup> 이광수의 「우덕송」와 「의의 인」, 민태원의 「청춘 예찬」 등 12편은 『문장강화』에도 수록되었다. 이처럼 「글 짓는 법 ABC」에 인용된 시는 대부분 『문장강화』로 계승되지 않았으나 소설과 수필은 상당수가 계승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글 짓는 법 ABC」가 조선어 문장론으로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례의 절반을 시가 차지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태준은 다양한 시를 문례로 사용한 의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그는 산문과 시가를 구분하지 않았고 문장 작법에서 ‘느끼는 공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sup>33)</sup> 여기서 말하는 ‘느끼는 공부’란 전고를 중요시한 근대 이전의 문장 작법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태준에게 근대 시가는 글쓴이의 감각이 여실히 드러난 텍스트인 동시에 글쓰기에 앞서 감각을 키워야 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31) 강영미, 「조선동요연구협회의 동요운동 연구」, 『동방학지』 19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0, 184쪽.

32) 「글 짓는 법 ABC」에는 「어린이 찬미」의 전문이 아니라 1절만 부분적으로 인용되었다. 이 사실은 이태준이 『신여성』에 두 번 실린 관본이 아니라 1934년 5월 6일자 『조선중앙일보』에 재발표된 「어린이 찬미」를 참조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조선중앙일보』에는 ‘고 방정환 씨의 수필의 일절로 「어린이 찬미」의 1절만 실려 있으며, 당시 이태준은 조선중앙일보사 기자로 근무하고 있었다.

33) 이태준, 「글 짓는 법 ABC(2)」, 『중앙』 2-7, 1934.7.

텍스트였다. 눈이라는 한 주제를 읊은 여러 작품을 인용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다음으로 「글 짓는 법 ABC」의 내용과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sup>34)</sup> 「글 짓는 법 ABC」의 구조를 『문장강화』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대략 제1장부터 제15장까지는 『문장강화』 제1장 ‘문장 작법의 새 의의’에 해당되며, 제16장부터 제18장까지는 제2장 ‘문장과 언어의 제문제’, 제24장은 제5장 ‘퇴고의 이론과 실제’, 제22장, 제23장과 제25장은 제6장 ‘제재, 서두, 결사 기타’, 제20장은 제7장 ‘대상과 표현’에 해당된다.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글 짓는 법 ABC」는 문장 작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사용 용어나 문체, 주제, 그리고 퇴고를 비롯한 형식적인 부분까지 작문에 관한 정보가 압축된 문장론이다.

이태준은 「글 짓는 법 ABC」 발표 이전부터 근대적인 규범을 준수하고 개

34) [표2] 「글 짓는 법 ABC」 목차

제목		제목	
-	머리말		
01	작문이란 무엇인가?	14	먼저 정좌하고
02	작문의 목적	15	진정에서
03	무엇을 쓸까?	16	유일어를 고르자
04	음풍영월식을 버리자	17	첫인상과 첫 생각
05	공상보다 체험 속에서	18	감각적으로
06	평범한 속에서	19	탄력적으로
07	일기를 하라	20	묘사에 대하여
			가. 정경의 묘사 나. 인물의 묘사
08	제 힘에 만만한 것으로	21	영탄에 대하여
09	비판적 의식을 거쳐서	22	글의 통일
10	주안점을 파악하라	23	점칭(点睛)의 묘(妙)
11	오래 보고 오래 생각하고	24	작문의 수정과 처리
			가. 쓰려던 것과 써진 것
			나. 백 번이라도 고치고
			다. 문제(文題)를 다시 보고 라. 문집을 만들라
12	내 것을 쓰자	25	문제, 서식, 기타
			가. 문제와 자연 나. 서식에 대하여 다. 안 써야 할 한자 단어들
13	글은 그 사람이다	26	작문의 사다(四多)

인의 감각과 생각을 중요시한 문장론을 일관되게 주장하였다.<sup>35)</sup> 제4장 ‘음풍 영월 식을 버리자’에서 이태준은 전고와 미사여구를 전제로 한 ‘음풍영월’ 즉 한문식 글쓰기를 배척하고 ‘진정이 발로될 자기의 실생활 속에서’ 글을 쓸 것을 권장한다. 제11장 ‘오래 보고 오래 생각하고’와 제18장 ‘감각적으로’에서 이태준은 대상을 관찰하고 느낀 바를 글로 표현해야 하며, 개념과 지식만으로 글을 쓰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한다. 특히 제18장에서 이태준은 학창 시절에 경험한 일을 소개하고 가을비를 주제로 한 학생의 작문을 제시한다. 이태준은 도화(圖畵) 시간에 선입견 없이 대상을 표현하는 일에 대한 어려움을 실감하였다고 한다. 이 일화는 『문장강화』 제6강에서 다시 언급될 만큼 이태준 문장론에서 중요한 내용이었다. 이어서 제시된 학생의 작문도 『문장강화』에 그대로 실렸는데, 이태준은 ‘가을비’라는 주제에 대한 관념적인 글과 감각적인 글을 비교하여 후자를 이상으로 삼았다. 이처럼 「글 짓는 법 ABC」 예문에는 작문 과제로 제출된 학생의 작문도 포함되었다.

이태준은 「글 짓는 법 ABC」 제16장 ‘유일어를 고르자’에서 이태준은 유일어를 “그 뜻에 어느 말보다도 가장 적합한 말”<sup>36)</sup>을 의미하는 플로베르의 말로 소개한다. 이태준은 소의 덕을 기린 이광수의 「우덕송」을 들어 유일어를 설명하는데, 동물의 성질에 알맞은 말 즉 유일어를 찾아내며, 족제비가 지나갈 때 느끼는 요망스러움은 ‘어슬렁어슬렁’보다 ‘살랑살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감각과 생각을 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맞는 낱말을 적절하게 선택해야 하였다.

유일어에 관한 이야기는 『문장강화』 제2강에서도 언급되는데, 예문으로 「우덕송」을 인용한 점과 개념을 설명하는 방식은 「글 짓는 법 ABC」와 거의 동일하였다. 그동안 이태준의 유일어 담론은 정확한 출전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필자는 유일어 담론이 모파상의 「소설(Le Roman)」에서 유래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모파상의 「소설」은 장편 『피에르와 장』(1888) 권두에

35) 「자연과 문헌」에서 이태준은 금강산의 자연을 표현할 때 고문헌을 찾는 전대의 문장법을 비판한 바 있다. 이태준, 「자연과 문헌」(『조선중앙일보』, 1933.8.6), 『무서록』, 박문서관, 1941.

36) 이태준, 「글 짓는 법 ABC(5)」, 『중앙』 2-10, 1934.10.

배치된 평론이다.<sup>37)</sup> 「소설」에서 모파상은 유일어에 관한 일화를 소개하는데, 이 이야기가 플로베르와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유일어는 오랫동안 플로베르의 말로 잘못 확산되었다고 한다.<sup>38)</sup> 따라서 이태준도 「글 짓는 법 ABC」 집필 당시에는 세간에 널리 퍼진 유일어를 플로베르의 말로 출전을 표시하지 않은 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3장에서 살펴보듯이 『문장강화』에서 유일어 담론은 모파상의 말을 직접 인용하면서 설명된다. 이는 이태준이 『문장강화』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유일어를 설명하기 위하여 모파상의 「소설」을 직접 읽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sup>39)</sup>

이처럼 「글 짓는 법 ABC」와 『문장강화』에는 공통점도 많지만 차이점도 존재한다. 글 짓는 법 ABC」의 결론에 해당하는 제26장 ‘작문의 사다(四多)’에서 이태준은 다독(多讀)과 다작(多作), 다사(多寫), 다개(多改) 등 문장력을 키우는 사다를 소개한다. 다독과 다작을 권장하는 짧은 일화를 소개한 후 한 걸음 나아가 많이 모사하는 ‘다사’와 많이 개작하는 ‘다개’를 추가하여 비로소 사다가 완성되는데, 다독과 다작은 구인회의 창립 목적이기도 하였다.<sup>40)</sup> 원래는 중국의 구양수(歐陽脩)가 주장한 ‘삼다(三多)’ 즉 간다(看多), 주다(做多), 상량다(商量多)가 맞으며, 조선과 일본에서는 일부 한자를 바꾸어 다독, 다작, 다상량(多商量)으로 알려진 개념이다.<sup>41)</sup> 이태준의 사다는 이를 바탕으로 하며, 다상량을 다사와 다개로 나누어 형성된 개념이었다.

‘사다’가 구인회의 방향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점은 매우 흥미롭지만 『문장

37) 『피에르와 장』과 「소설」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조. 황숙진, 「『피에르와 장』, 소설에 대한 모파상의 선언문」, 『코기토』 87,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9.

38) 木越富士彦, 「『一語説』とその周辺」, 『北海道大學外國語・外國語文學研究』 13, 北海道大學文學部, 1965, 10頁.

39) 와다 토모미에 따르면 이태준은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조선일보』, 1937.5.25~5.26)에서도 모파상의 「소설」을 인용하였다고 한다. 와다 토모미, 「외국문학으로서의 이태준 문학 - 일본문학과의 차이화(差異化)」, 『상허학회』 5, 상허학회 1999, 92~95쪽. 따라서 이태준은 1937년경 모파상의 「소설」을 읽은 것으로 추정된다.

40) 현순영, 앞의 책, 109~110쪽.

41) 이기라시는 삼다를 간다, 주다, 상량이라고 소개한 한편, 구메는 다독, 다작, 다상량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五十嵐力, 『新文章講話』, 早稲田大學出版部, 1909, 633頁; 久米正雄, 『文章の作り方』, 新潮社, 1937, 304頁. 이처럼 ‘삼다’는 당대 일본 문장론에서 어느 정도 일반화된 개념이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기라시와 구메의 문장론이 『문장강화』에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도 있다. 박진숙, 「한국 근대문학과 미문, 이태준의 미문의식」, 『한국현대문학연구』 24, 한국현대학회, 2008, 46쪽.

강화』에 이르러 ‘삼다’의 방법은 전근대적인 문장법이라는 이유로 부정된다. 그 이유에 대하여 이태준은 『문장강화』 제1장에서 근대인은 과학적인 견해와 이론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조선어가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 사정 작업을 통하여 근대적으로 정리되는 상황에서 ‘삼다’와 같은 방식은 더 이상 의의를 가지지 못하였다. 근대는 내용과 문체 등을 가리지 않고 문장을 많이 읽고 쓰고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생활과 감각에 맞는 어휘와 문체를 필요로 하였다. 이처럼 「글 짓는 법 ABC」에서 논의된 내용은 대부분 『문장강화』에서도 그대로 계승되었지만 ‘작문의 사다’처럼 예외적으로 부정되는 항목도 존재한다.

### 3. 문법의 출천을 통해 본 『문장강화』

3장에서는 「문장강화」를 거쳐 『문장강화』가 출간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태준은 1937년을 회고한 글에서 성과로 『가마귀』와 『제2의 운명』, 『구원의 여상』 등 단행본 세 권을 출간한 점을 들면서 『황진이』와 이화여전에서 강의한 문장학을 단행본으로 펴내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였다.<sup>42)</sup> 이태준은 1936년 가을부터 장티푸스에 걸려 한동안 병상에 누웠다가 1937년 3월 단편 「복덕방」을 겨우 발표한 상황이었다.<sup>43)</sup> 이후 연재소설 두 편을 제외하면 1938년까지 이태준이 발표한 단편은 고작 「패강랭」 한 편뿐이었다. 1938년을 창작의 공백기로 보는 연구가 있지만<sup>44)</sup>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이태준의 창작 공백기가 1937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출판사의 내부 사정도 있겠지만 이태준이 『가마귀』와 『제2의 운

42) “금년에 내가 이전(梨棗)에서 강의한 문장학을 정리하여 가지고 책을 만들려고 했더니 그만 부득이 소설을 쓰게 되어 그 연래의 계획을 중지하였으니 성패가 일반입니다.” 이태준, 「나의 일년 총결산 - 성패일관」, 『조광』 3-12, 1937.12. 참고로 『황진이』는 1938년 3월 동광당서집에서 출간되었다.

43) 『현대조선문학전집』에 관한 신문 광고에서 이태준은 「복덕방」을 쓰던 시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작년 중병(重病) 후에 몇 장 못 써서 허리가 아파 놓고 놓고 하던 생각이 납니다.” 『조선일보』, 1938.2.3.

44) 손유경, 『슬픈 사회주의자-미학적 실천으로서의 한국 근대문학』, 소명출판, 2016, 82쪽.



명』과 『구원의 여상』을 거의 동시에 펴낸 이유는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단행본 교정만은 겨우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문장강화』는 『문장』 연재(1939.2~10)를 거쳐 1940년 4월 20일 문장사에서 출간된 문장론이다. 초판에 이어 재판(1940.12.15)과 3판(1941.8.2)이 출간될 정도로 당대 독서계에서 많은 관심을 끈 『문장강화』는 「문장강화」를 대폭 수정한 텍스트였다. 「문장강화」와 『문장강화』의 목차를 비교하면<sup>45)</sup> 제1강부터 제3강까지는 동일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장강화」는 제5강에서 각종 문체와 퇴고에 관한 대목에서 연재가 종료되었다. 여러 문체를 소개한 후 마지막에 퇴고에 관한 내용을 배치한 점에서 「문장강화」도 일정한 체계를 갖춘 문장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태준은 연재를 마치면서 시간이 부족한 점을 들어 나중에 실제적 내용을 추가할 것을 기약한다.<sup>46)</sup> 이후 1940년 초까지 이태준은 ‘각종 문장의 요령’을 비롯한 네 가지 항목을 보완하여 『문장강화』를 탈고하였다. 제9강에 해당하는 ‘문장의 고전과 현대’의 초고는 단행본 출간을 앞두고 「문장의 고전, 현대, 언문일치」라는 제목으로 『문장』 2권3호(1940.3)에 발표되었다.

『문장강화』에 인용된 작품수는 150편을 넘으며, 권말 색인을 통하여 독자는 ‘문범으로 인용된 다양한 작품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문장강화』에는 문범 외에 동서양의 문예 비평가가 쓴 문장도 종종 삽입되었다. 유일어

45) [표3] 「문장강화」와 『문장강화』의 목차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연재본 「문장강화」	단행본 『문장강화』
제1강 문장 작법의 새 의의(1939.2)	제1강 문장 작법의 새 의의
제2강 문장과 언어의 제문제(1939.3-1939.5)	제2강 문장과 언어의 제문제
제3강 운문과 산문(1939.6-1939.7)	제3강 운문과 산문
-	제4강 각종 문장의 요령
제5강 퇴고의 이론과 실제(1939.10)	제5강 퇴고의 이론과 실제
-	제6강 제재, 서두, 결사 기타
-	제7강 대상과 표현
제4강 문체에 대하여(1939.7-1939.9)	제8강 문체에 대하여
문장의 고전, 현대, 언문일치(1940.3)	제9강 문장의 고전과 현대

46) “내가 쓰던 「문장강화」는 우선 이번 호로 붓을 쥘다. 쓰려고 생각한 것을 반이나 썼을까 하는 정도다. 시간을 얻는 대로 좀더 실제적인 대로 문체를 잡아 가지고 마저 쓸 것을 약속한다.” 「여묵」, 『문장』 1-9, 1940.10.

담론과 페이터의 말 등 일부 「글 짓는 법 ABC」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문장강화』에서 새로 추가된 문장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동서양의 문예 비평은 『문장강화』 제1강, 제2강, 제3강, 제8강에서 인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1강과 제2강은 『문장강화』의 성격이나 방향성과 관련된 동시에 이태준 문장론의 핵심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심스레 접근할 필요가 있다.

[표4] 『문장강화』에 인용된 비평가들의 발언과 출전

	저자	내용	출전
제1강	후스	팔불주의	胡適, 柳田泉譯, 「建設的文學革命論」(『世界思想全集』 39, 春秋社, 1929, 23頁)
	폴 모랑	비전통적 문장의 의의	堀口大學, 「ボオル・モオランの文章」(『日本現代文章講座』 8, 厚生閣, 1934, 366頁)
제2강	홍기문	언어의 미	「문단인에 향한 제의」, 『조선일보』(1937.9.18-9.26)
	이희승	어감	「사상 표현과 어감」(『한글』, 1937.10) <sup>47)</sup>
	플로베르	유일어	미상
	모파상	우리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표현하는 데는 한 말밖에 없다	モウパッサン, 前田晃譯, 「小説について」(『ビエルとジャン』, 岩波書店, 1928, 22頁)
제3강	발레리 <sup>48)</sup>	산문은 도보이며, 운문은 무도이다	미상
제8강	페이터	스타일(문체)은 곧 그 사람이다	미상
	스탕달	스타일을 짓는 것은 작품을 고상하게 하는 것이다	アンリイ・マッシス, 那須辰造譯, 『小説論』(金星堂, 1932, 28頁)
	앙리 마시스	근대문학은 구상과 함께 스타일의 이상을 완성시켜야 한다	アンリイ・マッシス, 那須辰造譯, 『小説論』(金星堂, 1932, 23頁)
	파스칼	자연스러운 문체에서 일개의 인간을 발견한다	パスカル, 由木康譯, 『パスカル冥想録』(白水社, 1938, 49頁)

47) 이태준은 출전을 「언어 표현과 어감」이라고 밝혔으나 정확한 제목은 「사상 표현과 어감」이다. 이를 단순한 오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상'이라는 말을 일부러 피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48) 『문장강화』 원문에는 출전을 알랭의 『산문론』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조사한 결과 알랭이 아니라 발레리의 발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당시 일본 또는 조선에서 발레리의 이 발언을 수용한 경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정확한 출전은 발레리의 「시와 추상적 사고(Poésie et pensée abstraite)」(1939)이다. 당시 일본에서 『산문론』(1933)이라는 제목으로 알랭의 『예술론집(Systèmes des beaux-arts)』이 부분적으로 번역된 바 있다.

[표5] 후스의 팔불주의 원문과 일본어 및 조선어 번역 비교

	중국어 원문 『建設的文學革命論』(1918)	일본어 번역 『世界思想全集』(1929)	조선어 번역 『문장강화』(1940)
1	不做「言之無物」の文字	「言有つて物無き」文を作らぬこと	언어만 있고 사물이 없는 글을 짓지 말 것
2	不做「無病呻吟」の文字	「病無くして呻吟する」文を作らぬこと	병없이 신음하는 글을 짓지 말 것
3	不用典	典故を用ひぬこと	전고를 일 삼지 말 것
4	不用套語爛調	爛調套語を用ひぬこと	난조투어를 쓰지 말 것
5	不重對偶	對偶を重んぜぬこと	대구를 중요시하지 말 것
6	不做合文法の文字	文法に合はぬ文を作らぬこと	문법에 맞지 않는 글을 쓰지 말 것
7	不摹倣古人	古人を摸倣せぬこと	고인을 모방하지 말 것
8	不避俗話俗字	俗語俗字を避けぬこと	속어, 속자를 쓰지 말 것

제1장에 인용된 후스의 일명 팔불주의는 근대 이전의 문장 작법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참조되었고 선행연구를 통하여 잘못된 출전과 여덟 번째 주장에 관한 오역이 바로잡혔다. 선행연구에서는 식민지 조선의 후스 수용을 염두에 둔 논의가 산견되지만<sup>49)</sup> 필자는 이태준이 중국어 원문이나 조선어 번역본이 아니라 일본어 번역본을 통하여 후스 사상에 접하였을 가능성을 새로 제기하고자 한다.

이태준이 참조한 후스의 「건설적 문학혁명론」(1918)은 春秋社刊 『世界思想全集』 第39卷(1929)에 수록된 일역본으로 추정된다. 한 근거로 『문장강화』에서 팔불주의의 네 번째 항목에 나오는 ‘套語爛調’를 원문의 순서와 다르게 ‘난조투어’로 번역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오류는 해당 부분을 ‘난조투어를 쓰지 말 것(爛調套語を用ひぬこと)’으로 옮긴 일역본을 참조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sup>50)</sup> 여덟 번째 항목에 대한 오역 또한 중국어 원문이

49) 배개화와 문혜윤은 팔불주의에 관한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후스의 「건설적 문학혁명론」 원문과 이윤재의 초역본(「호적 씨의 건설적 문학혁명론」, 『동명』, 1923.4.15~5.5)을 언급하였고 최근 발표된 박영재의 논문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보인다. 배개화, 앞의 책, 243쪽; 문혜윤, 앞의 책, 236-238쪽; 박영재, 「이태준 고전 담론과 『文章』의 낭만주의-내간체의 발견과 <춘향전>의 귀환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96, 민족어문학회, 2022, 108-109쪽.

50) 胡適, 「建設的文學革命論」, 『新青年』 4-4, 1918.4, 289~290頁; 胡適, 柳田泉譯, 「建設的文學革命論」, 『世界思想全集』 39, 春秋社, 1929, 23頁; 이태준, 『문장강화』, 문장사, 1940, 12쪽. 이태준은 「소설

아니라 ‘속어 속자를 피하지 말 것(俗語俗字を避けぬこと)’이라는 일본어 번역을 ‘속어, 속자를 피할 것(俗語俗字を避けること)’으로 오독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팔불주의는 글을 쓸 때 하지 말아야 할 여덟 가지 행동을 제시한 강령인데, 다른 항목들과 달리 여덟 번째 항목에 나온 ‘피하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이태준은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이태준은 『문장강화』 제6장에서 홍명희의 『임격정』을 들어 등장인물의 ‘생활 속어’가 적절하게 사용된 문장이라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이태준은 팔불주의의 여덟 번째 항목을 의도적으로 바꾸었다고 하기보다는 일어 번역을 오독한 것이다.

제1강 말미에 삽입된 폴 모랑의 말은 전통적인 동시에 고전적인 프랑스로는 쓰고 싶은 것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출전은 厚生閣刊 『日本現代文章講座』 第8卷 鑑賞篇(1934)에 수록된 호리구치 다이가쿠 [堀口大學]의 폴 모랑론이며, 인용된 대목은 『밤을 열다』(1922) 출간 당시 폴 모랑이 독자와 비평가들에게 비난받을 것을 전제로 작성한 문장의 일부이다. 이태준은 비전통적인 문장을 구사하려고 한 모랑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개인의 감정과 사상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문장 작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새로운 문장 작법에 있어 문장의 체제<sup>51)</sup>인 문체 즉 스타일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 『문장강화』 제8강에는 문체와 관련하여 페이터와 스탕달, 앙리 마시스, 파스칼의 말이 인용되었는데, ‘스타일(문체)은 곧 그 사람이다’라는 페이터의 말은 일찍 「글 짓는 법 ABC」 제13장에서 언급된 바 있다. 페이터의 말은 출전을 확인할 수 없었고 『문장강화』에서도 ‘일찍부터 유행한 금언’이라고만 소개되었다. 그러나 필자는 스탕달과 앙리 마시스의 말은 앙리 마시스의 일역본 『소설론』에서 인용되었고<sup>51)</sup> 파스칼의 말은 일역본 『팡세』에

가)에서도 ‘난조투어라는 말을 사용한 바 있다. 이태준, 『무서록』, 박문서관, 1941, 119쪽. 「소설가」는 『소설독본』(『여성』, 1938. 7)의 일부로 발표된 글인데, 첫 발표지면에는 ‘난조투어 대신 ‘미사여구’가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태준은 『문장강화』 집필을 통하여 ‘난조투어라는 말을 알게 되어 『무서록』에 「소설독본」을 재수록하는 과정에서 표현을 바꾼 것으로 추정된다.

51) 이태준은 「소설독본」(『여성』, 1938. 7)에서도 예술가의 직무에 관한 앙리 마시스의 발언이 인용되었는데, 이 발언 또한 마시스의 일역본 『소설론』에서 인용되었다. アンリイ・マシス, 那須辰造譯, 『小説論』, 金星堂, 1932, 24~25頁.

서 인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인용된 구절은 공통적으로 문장 작법에서 문체가 지닌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이었다. 다만 파스칼의 말은 문체에 고집을 부리다가 문장의 ‘자연스러움’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교훈적인 내용이었다.

조선인 국어학자로 유일하게 거론된 홍기문과 이회승의 논설문은 상술한 비평가들의 명언과 달리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인용되었다. 따라서 문범으로 인용된 다른 문장이나 인용문과 성격을 달리한다. 홍기문과 이회승의 논설문은 어휘와 관련된 제2장에서 연이어 제시되었는데, 전자는 문단인들에게 조선어의 아름다움을 수호할 것을 제안한 평론이며, 후자는 조선어의 어감을 설명한 논문의 일부이다. 이태준은 의음어와 의태어에 관한 대목에서 자모 교체로 인한 어감 차이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이회승의 논문은 이론적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글 짓는 법 ABC」와 「문장강화」에 제시된 문범을 비교하고자 한다. 가장 큰 차이는 「문장강화」가 소설을 비롯한 산문 위주로 구성된 점이다. 실제로 시의 경우는 14수에서 5수로 크게 줄었다. 정지용의 감각적인 작품도 새로 추가되었지만 주요한의 「샘물이 혼자서」와 김소월의 「가는 길」은 이개의 시조와 함께 제3장에서 운문의 특징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인용되었다.<sup>52)</sup> 「글 짓는 법 ABC」에서 감상 대상으로 간주된 시의 위상은 「문장강화」에서 산문과 운문을 구별하면서 추락한 셈이다. 소설의 경우는 4편에서 17편으로 증가하였다. 시와 달리, 「글 짓는 법 ABC」에 인용된 소설 4편 중 3편은 「문장강화」에서도 묘사와 관련된 대목에서 인용되었다. 이 밖에 소설은 제2장 ‘문장과 언어의 제문제’를 중심으로 방언(김동인 「감자」), 대화(이태준 「색시」,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동 『천변풍경』, 이상 「날개」 등), 한자 표기(염상섭 「전화」, 동 「제야」) 등 각각 주제에 맞는 작품이 추가되었다.

52) 주요한의 「샘물이 혼자서」는 『아름다운 새벽』(1924)과 『조선명작선집』(1936)에 수록되었고 김소월의 「가는 길」은 『진달래꽃』(1925)에 수록되었다. 그러나 두 작품은 『삼천리문학』 제1집(1938.1)에 실린 「소월 시조」와 제2집(1938.4)에 실린 「요한 시조」에 재수록된 작품이기도 하였다. 『문장강화』에는 최정희의 「정적기」와 김진섭의 「체루송」, 「작가일기」 등 『삼천리문학』에서 인용된 작품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이태준이 「소월 시조」와 「요한 시조」를 참조한 가능성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 『문장강화』 제2장에 제시된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또한 「소월 시조」에 재수록된 작품이었다.

『문장강화』에 인용된 작품은 대부분 『문장강화』에서도 문범으로 인용되었다.

『문장강화』 문범의 출전과 관련하여 이태준은 이윤재 편 『문예독본』과 『현대조선문학전집 - 기행수필편』을 비롯한 전집류를 참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신문과 잡지에서 인용된 문범도 많지만 전집류의 존재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sup>53)</sup> 이는 『문장강화』 제4강에 수록된 유광렬의 「행주성 전적」과 정인섭의 「애급의 여행」, 이광수의 「금강산 기행」, 변영로의 「시선에 대하여」가 원제목이 아니라 『문예독본』과 『현대조선문학전집』에 수록되면서 변경된 제목으로 실린 점에서 확인된다.<sup>54)</sup> 『문장강화』에 인용된 ‘여성 작가’ 작품은 모윤숙과 최정희의 일기를 제외하면 모두 『현대조선여류문학선집』(1937)에 수록된 작품이었고 최재서의 글은 평론집 『문학과 지성』(1938)에 수록된 글이었다. 이 밖에 박태원, 주요섭, 김동인, 염상섭 등의 소설도 『현대조선문학전집』과 『천변풍경』(1938),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1938), 『감자』(1935), 『견우화』(1924) 등 단행본에 수록된 작품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이태준이 당시 출판된 전집류를 적극적으로 참조하였다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이하 『문장강화』 출간 시에 추가된 제4강, 제6강, 제7강, 제8강과 고전과 관련된 제9강을 중심으로 주목할 만한 내용과 문범의 출전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제4강에서 인용된 각종 문장 가운데 서간문과 추도문은 내용과 더불어 작성된 배경과 맥락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제4강에 제시된 서간문은 채호프의 서간과 선조 인간, 어떤 학생의 편지 두 통, 백철의 생일 초대 편지, 「고 최학송 씨가 조규원 씨에게 보낸 엽서」, 「정지용 씨가 필자(이태준 - 인용자)에게 보낸 엽서」, 결혼 청첩장, 추도회 청장의 총 아홉 통에 이르며, 일부 서간문은 이태준의 『서간문강화』(1943)에 재수록되었다.<sup>55)</sup> 이태준

53) 다만 이병기의 경우는 잡지에 실린 글 외에 원고 청탁을 받아 새로 집필된 글들도 수록되었다. 「가람 일기」에 따르면 1940년 2월 4일 이병기는 『문장강화』에 수록할 일기문과 감상문, 묘사문의 원고 청탁을 받았고 2월 16일에 이태준에게 원고를 전달하였다. 이병기, 「가람 이병기 전집 일기」 IV,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508-511쪽. 이때 집필된 일기와 감상문은 제4강에 인용된 「일기」와 「매화옥」이며, 묘사문은 제7강에 인용된 「건란」이다.

54) 구자황은 『문장강화』에 실린 예문이 『문예독본』에서 다수 인용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구자황, 앞의 글, 489~490쪽.

은 ‘서간문의 요령’ 서두에 체호프와 선조의 서간, 즉 서양과 조선의 서간문을 삽입하여 조선시대 사대부의 한문 서간문보다 ‘쉬운 것’을 강조한다. 여기서 말하는 조선의 서간문이란 인간을 가리키는데, 한문보다 한글에 익숙한 당대 청년들에게 인간은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태준의 주장은 척독을 ‘개성을 몰락한 그릇된 문장 정신’이라고 비판한 제1강과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 다만 필자가 확인한 결과 『문장강화』에 인용된 체호프의 서간은 영역본을 저본으로 한 일역 『체호프 서간집』을 다시 번역한 문장이었다.<sup>56)</sup> 따라서 삼중으로 번역된 서간문 문체를 한문과 단순히 비교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태준은 체호프가 쓴 러시아어 서간문은 조선시대 사대부의 한문 서간문보다도 내용을 쉽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참고로 선조 인간은 정유재란 당시 선조가 정숙옹주에게 안부를 전한 서간으로 이병기 소장본을 참조하였다고 한다.<sup>57)</sup> 후술하듯이 『문장강화』에는 『한중록』을 비롯하여 이병기가 소장한 필사본을 출전으로 한 작품이 몇 편 인용되었다.

최학송과 정지용의 엽서에 대하여 이태준은 『문장강화』 출간 이전에 수필에서 전문을 소개하고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전자는 「독자의 편지」(1939)에 소개된 엽서로 1926년 6월 5일 최학송이 조규원에게 상경하거든 새로 이사한 송이동 자택에 들를 것을 권한 내용이다. 이 엽서는 한 독자가 헌책을 뒤지다가 우연히 발견하여 이태준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는데,<sup>58)</sup> 최학송의 본의와 다르게 역사에 남게 되었다. 후자는 「설중방란기」(1936)에 소개된 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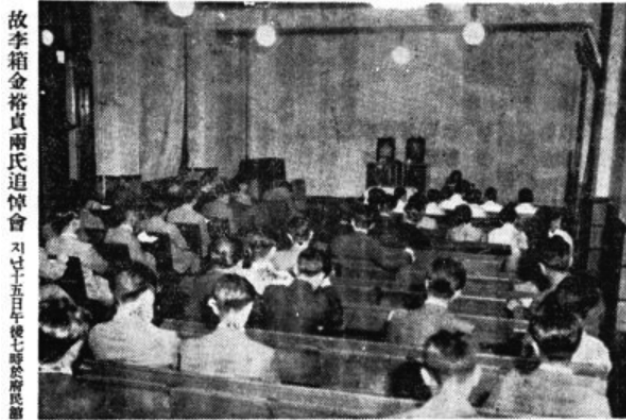
55) 『서간문강화』에 재수록된 서간문은 선조 인간, 백철의 생일 초대 편지, 「고 최학송 씨가 조규원 씨에게 보낸 엽서」, 「정지용 씨가 필자에게 보낸 엽서」, 추도회 청장의 다섯 통이다.

56) 内山賢次譯, 『チエホフ書簡集』, 春秋社, 1926, 2頁. 체호프의 서간은 1887년 4월 2일 출생지인 타간로크에서 누이에게 보낸 서간문이다.

57) 이 서간문 원본은 현재까지 유실된 상태이며, 이병기 편주 『근조내간문』(1948)에 수록된 판본만 존재한다. 김일근, 『인간의 연구』, 건국대학교출판부, 1986, 56-57쪽.

58) 상허, 「독자의 편지」(『문장』, 1939.11), 『무서록』, 박문서관, 1941. 엽서의 수신일에 대한 정보는 이태준, 『서간문강화』, 박문서관, 1943, 222쪽 참조. 수신인인 조규원은 최서해의 부인이자 영광 출신의 조분녀와 한 집안의 인물로 추정된다.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조규원은 1920년대 중반 영광 지역에서 활동하였고 영광청년회 이사와 시대일보 영광지국장, 동아일보 영광지국 고문을 역임한 인물로 나온다. 「영광 청년 정기총회」, 『동아일보』, 1922.12.2; 「사고」, 『시대일보』, 1924.5.29; 「사고」, 『동아일보』, 1925.6.16. 엽서에는 최서해의 거주지가 송이동으로 나오지만 이는 송삼동의 오식이라고 한다. 김기현, 「『朝鮮文壇』時節의 崔曙海 - 崔曙海의 傳記的 考察(4)」, 『우리문화연구』 2, 우리문화회, 1977, 42쪽.

로 1936년 1월 20일 정지용이 이태준에게 22일 저녁에 가람 댁에서 모임을 가질 것을 제안한 내용이다.<sup>59)</sup> 「설중방란기」를 통하여 실제로 정지용과 이태준이 가람 댁에 모여 난초를 감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태준은 수필에서 인용할 정도로 인상적인 서간문을 『문장강화』에서도 인용하였다.



[그림2] 이상과 김유정의 합동 추도식 (『조선일보』, 1937.5.19)

이러한 서간문 외에 청장 예문으로 소설가 김유정과 이상의 합동 추도식 청접장이 제시되었는데, 실제로 추모식은 1937년 5월 15일 저녁에 경성부민관에서 열렸다. 1937년 초에 연달아 세상을 떠난 김유정과 이상에 대하여 이태준을 비롯한 문단인 총 25명을 발기인으로 합동 추도식은 추진되었다. 고인의 망령을 위로하고 명복을 비는 이 추도식 청장은 선행연구에서도 주목받지 않았고<sup>60)</sup> 현재 실물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적 가치도 있다. 수많은 청접장 가운데 이 합동 추도식 청접장을 선택한 이태준의 의도는 『문장강화』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요절한 두 작가에 대한 애도와 문단사적 의의는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이다.

59) 이태준, 「설중방란기」, 『시와 소설』 1, 1936.3.

60) 요절한 김유정과 이상의 애도 양상에 주목한 논문에서도 추도회 청장에 대하여 언급되지 않았다. 석형락, 「1930년대 후반 작고 작가 애도문의 서술 양상과 그 의미 - 김유정과 이상의 죽음에 제출된 애도문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71, 한국현대소설학회, 2018.



제4강의 한 항목으로 배치된 추도문도 『문장강화』와 당대 문단을 잇는 매개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추도문으로 제시된 정지용의 「서왕록」(1938)과 김기림의 「고 이상의 추억」(1937)은 문인들의 두터운 우정을 바탕으로 집필된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서왕록」은 정지용이 시인 박용철의 작고 직후 ‘회우수필(懷友隨筆)’의 한 편으로 『조선일보』에 발표한 추도문이다.<sup>61)</sup> 정지용은 「서왕록」 하편에서 키케로의 말과 두보의 한시를 참조하면서<sup>62)</sup> 고인의 덕의를 추모하였는데, 이태준은 바로 이 부분을 인용하고 있다.

「고 이상의 추억」은 이상의 작고 직후 『조광』에 발표된 추도문이며, 김기림은 이상의 예술세계와 그 진가를 전면적으로 옹호한다.<sup>63)</sup> 이태준은 추도문의 특징을 정리하면서 반드시 사람을 올려야만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는데, 「고 이상의 추억」은 제4강에서 추도문의 여러 특징 중 하나로 거론된 ‘망인이 살았을 때의 신선한 일면모를 보여주어 그의 덕풍과 공적을 찬송해야 할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시된 추도문이었다. 「서왕록」과 「고 이상의 추억」은 추도문이 가진 다양한 의미를 보여줄 뿐 아니라 요절한 박용철과 이상을 범문단적으로 추모한 글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이상의 경우는 합동으로 추도식을 치른 김유정이나 「서왕록」에서 추모 대상이 된 박용철과 달리 『문장강화』 곳곳에서 작품이 인용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이상의 작품은 주로 『문장강화』 제4강과 제6강, 제7강에서 제시되었다. 이는 이상의 작품이 단행본 『문장강화』를 펴내는 과정에서 추가되었음을 의미한다. 「산촌여정」(1935)과 「권태」(1937)는 제4강에서 기행문과 수필의 문범으로 제시되었고 제6강에서는 ‘감각과 문장미’를 지닌 문장으로 제시되었다. ‘감각과 문장미’란 예리한 관찰과 신경을 통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포착한 글을 가리키며, 여름 더위를 ‘나뭇잎들이 다 축 늘어져 허덕허덕하도록’ 덥고 ‘시내물들은 서늘한 소리를 내어보는 재간도 없으리라’고 표현한 「권태」

61) 이 밖에 ‘회우수필’에는 이양하의 「실행기(失幸記)」와 안화남의 「악동(惡童)」이 실렸는데, 전자는 박용철에 대한 추도문이며, 후자는 김유정에 대한 추도문이다.

62) 원문에는 출전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필자가 확인한 결과 키케로의 말은 모두 『우정론』에 나온 구절이며, 두보의 한시는 「백설새[百舌]」의 제3구에서 인용된 구절이었다.

63) 「고 이상의 추억」이 발표된 『조광』 3권 6호(1937.6)에는 박태원의 「고 이상의 편모」도 실려 있다.

의 한 구절이 인용된다.

이 밖에 「감각과 문장미」를 지닌 글로 정지용의 「수수어」(1937)와 「비」(1937), 최명익의 「역설」(1938)을 들 수 있다. 「수수어」와 「비」는 각각 개성 점과 빗방울을 예리하게 관찰한 글이며, 최명익의 「역설」은 초점화자가 옴두꺼비의 생태를 관찰하고 사유한 글이다. 「감각과 문장미」에는 학창 시절의 일화와 함께 가을비에 관한 학생의 작문이 삽입되었다. 선입견 없이 대상을 표현할 것을 강조한 이 일화는 학생의 작문과 더불어 「글 짓는 법 ABC」 제18장에 제시된 내용과 동일하였다. 이태준은 감각적인 문장을 선호하였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경험담을 『문장강화』에서도 재인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7강 「대상과 표현」에서는 인물과 자연, 사태 등 대상별로 대표적인 작품을 제시되었다. 이상의 「권태」와 더불어 이병기의 「건란」과 정지용의 「체화」, 「때까지」, 「구름」 등이 인용되었다. 정지용의 「체화」와 「때까지」는 1938년 여름 『동아일보』 「여창단신(旅窓短信)」에 발표된 기행문이며, 전라남도 강진의 체화와 때까지가 묘사된다. 「구름」도 비슷한 시기에 『동아일보』 「자연계와의 대화집」 기획에 발표된 글이며, 이태준은 새로운 감각으로 낮익은 구름을 낯설게 표현한 점을 들어 높이 평가한다.

『문장강화』에 인용된 이상과 정지용의 글은 「날개」와 『정지용 시집』 수록 작품을 제외하면 모두 단행본에 수록되지 않았다.<sup>64)</sup> 달리 말하면 이태준은 정기간행물에 실린 이상과 정지용의 글을 개인적으로 수집하여 『문장강화』에 사용한 셈이다. 평양 사투리를 활용하여 지방색을 드러낸 정지용의 「평양」(1940)처럼 『문장강화』 출간 직전에 발표된 글까지 문범으로 인용되었다. 이상과 정지용만이 아니라 최명익의 소설도 대상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묘사한 문장으로 「역설」 외에 2편이나 인용되었는데, 2편 모두 단행본 미수록 작품이었다.

64) 1940년 전후 정지용의 산문집 「수수어」(출판사 미상)와 김기림·임화 편 「이상 유고집」(학예사)이 출간될 예정이었지만 결국 무산되었다. 「조선문예가총람」, 『문장』 2-1, 1940.1, 241쪽; 장문석, 「전형기 입화와 「조선」의 발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62쪽.

이처럼 『문장강화』에서 이상과 정지용의 문장은 최명익과 더불어 감각적이라는 이유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단행본에 수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법으로 다수 인용되었다. 이태준은 『문장강화』 제9장에서 이들을 ‘언문일치 문장의 완성자’인 이광수를 거쳐 박태원, 이효석, 김기림으로 이르는 조선 문학의 계보 속에 자리매김한 동시에 감각 즉 ‘현대’적인 조선어 문장을 구사한 인물로 보았다.<sup>65)</sup> 따라서 이태준은 구인회의 인연보다는 『문장강화』를 통하여 조선어 문장의 역사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이상과 정지용의 감각적 문체를 호평하였다.

다음으로 『문장강화』 제8장 ‘문체에 대하여’에 제시된 각종 문체의 분류 방식과 문법의 출전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제8장 서두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체에 관한 페이터와 앙리 마시스 등 문예 비평가들의 발언이 인용되었다. 이태준은 문체가 발생하는 배경으로 ‘독특한 언어, 문자와 국민성’과 ‘동일한 언어, 문자라도 시대가 다름’, 그리고 ‘동일한 언어, 문자에 동일한 시대라도 작자의 개성이 다름’의 세 조건을 든다. 두 번째 배경과 관련하여 유길준의 『대한문전』(1909) 서문을 인용하면서 지난 30년 동안 한글을 사용한 조선어 문체의 변모 과정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문장강화』에서 제시된 문체는 간결체, 만연체, 강건체, 유난체, 건조체, 화려체의 여섯 종류이다.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이는 시마무라 호게쓰가 『신미사학』에서 제시한 문체 구분과 완전히 일치한다.<sup>66)</sup> 다만 시마무라 또한 서양의 수사학을 참조하면서 『신미사학』을 집필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sup>67)</sup> 이태준도 문체 구분법은 『신미사학』을 따르되 각 문체에 대한 설명은 문법으로 제시한 조선어 문장에 맞추어 새로 작성되었으며, 만연체 문장을 간결체로 다시 쓰거나 강건체 문장을 유난체로 바꾸어 문체의 특

65) 『문장강화』 제9장에 거론된 작가 가운데 박태원의 문장은 『천변풍경』과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등 단행본 위주로 6편 인용되었는데, 이효석은 「돈」 1편, 김기림은 「여행」과 「고 이상의 추억」 등 2편만 인용되었다. 참고로 「돈」은 단행본 단편집에 수록된 한편, 김기림의 글은 단행본에 수록되지 않았다.

66) 박진숙, 앞의 글, 2011, 267쪽.

67) 『신미사학』의 내용과 특징에 대해서는 速水博司, 『近代日本修辭學史』, 有朋堂, 1988, 189~203頁.

정을 비교하기도 하였다.

[표6] 『문장강화』 제8강에서 사용된 문체 구분과 문법

문체	영어 명칭 <sup>68)</sup>	문법
간결체(簡潔體)	Concise style	김동인 「태형」
만연체(蔓衍體)	Diffuse style	박태원 「아름다운 풍경」, 김진섭 「체루송」
강건체(剛健體)	Nervous style	안재홍 「백두산 등첩기 서」, 민태원 「청춘 예찬」
유난체(優柔體)	Feeble style	이병기 「승가사」
건조체(乾燥體)	Dry style	홍명희 「온돌과 백의」, 정인보 「고산자의 대동여지도」
화려체(華麗體)	Florid style	나도향 「그믐달」, 이선희 「곡예사」

위에서 제시된 문법의 출전을 단행본 위주로 정리하자면 조선 문화와 관련된 건조체 논설문 두 편은 화려체인 나도향의 「그믐달」과 함께 『문예독본』에 수록된 것이었다. 강건체 문장으로는 안재홍의 『백두산 등첩기』 서문과 민태원의 「청춘 예찬」 전문이 인용되었는데, 「청춘 예찬」은 「글 짓는 법 ABC」 제19장에서도 ‘탄력적’인 문례로 제시된 글이었다. 이 탄력성이 강건체 문장의 특징으로 거론된 점을 고려할 때, 「청춘 예찬」에 대한 이태준의 평가 기준이 일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간결체 문장으로 분류된 「태형」은 김동인의 초기 작품이지만 단편집 『감자』(1935)에서 인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sup>69)</sup> 이 밖에 이선희의 「곡예사」와 박태원의 「아름다운 풍경」은 『현대조선 여류문학선집』과 『현대조선문학전집 - 기행수필편』에 수록된 작품이었지만 이병기의 「승가사」<sup>70)</sup>와 김진섭의 「체루송」은 월간지에서 직접 인용된 것으로 보인다.

68) 영어 명칭은 사마무라의 『신미사학』을 따랐다. 島村瀧太郎, 『新美辭學』, 東京專門學校出版部, 1902, 454頁.

69) 이태준은 『감자』에 대한 서평에서 김동인의 어느 작품보다도 「태형」을 높이 평가한 바 있다. 상허, 「김동인 씨의 단편집 『감자』」, 『조선중앙일보』, 1935.3.14.

70) 「승가사」의 출전은 『중앙』 4권 6호(1936.6)에 실린 「경산 사찰기(京山四刹記)」이며, 이태준은 제목을 바꾸어 『문장강화』에 수록하였다.

제8장에 제시된 문법은 각 문체로 쓰인 대표적인 문장을 뽑은 것으로 추정되며, 개성보다 전형성을 지닌 문장들이 선별되었다. 그러나 건조체 문장으로 분류된 논설문 두 편은 문체와 더불어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목에서 짐작되듯이 홍명희의 「온돌과 백의」는 조선의 온돌 사용과 백의의 문화사적 의의를 설명한 글이며, 정인보의 「고산자의 대동여지도」는 『대동여지도』의 특징을 간략하게 소개한 글이다. 이 논설문들은 조선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예독본』에 수록된 것으로 보인다. 이태준은 『문장강화』에서 문체와 관련된 대목에서 인용하였고 내용을 강조하기 위하여 원제목에 바꾸어 수록하였다.<sup>71)</sup> 문예 비평을 비롯한 수많은 논설문 중에서<sup>72)</sup> 조선 문화와 관련된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문체와 동시에 내용성을 중요시한 결과였다.

마지막으로 『문장강화』 제9장 ‘문장의 고전과 현대’는 조선어 문장을 통하여 문학사를 서술한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9장은 ‘문장의 고전과 문장의 현대’, ‘언문일치 문장의 문제’의 세 항목으로 구성된다. 단행본 출간 직전에 『문장』을 통하여 발표된 초고 「문장의 고전, 현대, 언문일치」와 비교하면 내용상에 큰 변화는 없다. 다만 초고에서 제목만 언급되던 내간체 문장은 단행본에서 원문도 함께 인용되었다. ‘문장의 현대’를 둘러싼 문제는 감각적인 문장에 관한 대목에서 앞서 논의하였기 때문에 ‘문장의 고전’을 중심으로 제9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9장에는 고전으로 『춘향전』과 『한중록』, 선조 언간, 제문, 『택리지』, 「제침문」이 인용되었다. 이 밖에 『문장강화』에는 『장화홍련전』과 「유산가」, 시조 등 다양한 고전 작품도 인용되었는데, 『장화홍련전』은 『춘향전』과 더불어 비판적인 맥락에서 인용되었다. 이태준은 사실성이 매우 희박한 동시에 운문이라는 점을 들어 두 작품의 문학적 가치를 부정한다.

71) 「온돌과 백의」의 원제목은 「사화삼칙(史話三則)」이며, 『동아일보』(1924.10.7)에 처음 발표되었고 『문예독본』 상권(1931)에 「사화삼칙」으로 재수록되었다. 이태준은 「사화삼칙」에서 ‘여관’에 관한 부분을 모두 생략하고 제목을 「온돌과 백의」로 바꾸어 『문장강화』에 인용하였다.

72) 참고로 제4장 ‘각종 문장의 요령’에서 인용된 논설문은 「한글 철자법 시비에 대한 성명서」와 신문 사설, 잡지 권두언, 최재서의 평론, 안재홍의 독서론 등이었다.

그렇다면 이태준의 고전 인식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서지적 관점에서 정리하자면 우선 일련의 시조는 이태준이 『황진이』(1938)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필자가 확인한 결과 『문장강화』에 인용된 시조 3수는 모두 『황진이』에서도 인용된 작품과 일치한다. 『황진이』 작가 후기에 따르면 이태준은 오세창, 이은상, 이병기 등의 도움을 받아 관련 자료를 입수하였다고 하는데,<sup>73)</sup> 이때 황진이만이 아니라 이개와 길재의 시조도 함께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개의 「방안에 헛는 촛불」은 운문에 관한 『문장강화』 제3장에서 인용되었고 길재의 「오백년 도읍지를」은 퇴고와 관련된 제5장에서 인용되었다. 황진이의 시조 「동짓달 지나긴 밤을」은 조선어 고유의 ‘성향미(聲響美)’와 번역불가능성을 강조하는 대목에서 자하 신위의 한시 번역과 나란히 인용되었다.

한편으로 부정적인 맥락에서 인용된 『장화홍련전』과 『춘향전』의 출전은 1938년 4월 인문사에서 출간된 이희승 편 『역대조선문학정화』 권상이다.<sup>74)</sup> 『역대조선문학정화』는 전문학교에서 사용하는 조선문학 교재로 편찬되었고 ‘문학적 가치’가 인정된 한글 소설, 시조, 수필 등이 다수 수록되었다. 1930년대 후반에는 중앙인서관과 학예사를 비롯한 출판사에서 전문가의 교열을 거친 고전 작품들이 출간되는 상황에서<sup>75)</sup> 『역대조선문학정화』는 조선문학의 ‘정화’를 부관할 수 있는 선집이었고 특히 한글 작품만을 조선문학으로 간주하는 이태준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필자가 확인한 결과 상술한 두 작품만이 아니라 『문장강화』에 인용된 「유산가」와 「제침문」의 출전 또한 『역대조선문학정화』 권상이었다. 「유산가」는 조선어의 풍부한 의성어를 설명하는 제2장에서 인용된 한편, 「제침문」은 고전의 특권과 ‘어리석하고 여유 있는 맛’을 가진 작품으로 제9장에서 인용되었다.

73) 이태준, 「책 뒤에」, 『황진이』, 동광당서점, 1938, 245쪽.

74) 이태준은 『역대조선문학정화』에 수록된 원문의 한자 표기를 일부 한글로 바꾸어 인용하였다. 「소설독본」(1938)에서도 이태준은 『장화홍련전』과 『춘향전』을 부정적인 맥락에서 인용하였는데, 필자가 확인한 결과 『문장강화』에서도 동일한 대목을 인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태준은 「소설독본」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역대조선문학정화』를 참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75) 중앙인서관과 학예사의 출판물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장문석, 앞의 글; 장문석, 「출판사 중앙인서관과 조선어문 출판물 간행」, 『한국학논집』 82,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21.

이처럼 『역대조선문학정화』는 이태준의 고전 인식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문장강화』에는 갓 활자화된 문장만이 아니라 필사본에서 인용된 문장도 수록되었다. 제9강에는 오랫동안 인목왕후의 전교로 잘못 알려진 선조 인간도 인용되었는데,<sup>76)</sup> 가장 상징적인 작품으로 ‘조선의 산문 고전’인 혜경궁홍씨의 『한중록』을 들 수 있다. 『한중록』은 『문장』에 연재된 고전 산문으로 원본 소유자인 이병기가 교주를 맡았다. 당대 학계에서도 『한중록』은 겨우 제목만 알려진 작품이었고 이회승 편 『역대조선문학정화』에도 언급은 없었다. 『문장』 창간 직후에는 『한중록』의 진위를 둘러싼 논쟁도 있었으나 현재까지 혜경궁홍씨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다.<sup>77)</sup> 이병기가 『한중록』을 입수한 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늦어도 1937년 말까지 입수한 것으로 추정된다.<sup>78)</sup> 이태준이 매화옥에서 필사본 『한중록』을 접한 시기와 『문장』 연재를 결정한 시기 또한 확정을 지을 수 없다. 다만 『여성』 3권 7호(1938.7)에 발표된 이태준의 「소설독본」에서 『한중록』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는 1938년 후반기에 『한중록』의 존재를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태준은 ‘전아(典雅)한 고치(古致)’를 지닌 간결함과 ‘세련된 궁중 어휘와 어법’을 들어 『한중록』을 높이 평가하였는데, 무엇보다도 내간체가 사용된 ‘순수한 산문’이라는 점을 중요시하였다.<sup>79)</sup> 내간체에 대한 이태준의 평가는 선행연구에서도 지

76) 이는 선조가 정숙옹주에게 내린 인간이며, 출전은 가람 이병기 소장본의 「인목왕후필적」이다. 김일근, 앞의 책, 55-56쪽. 1930년대 후반 정지용은 한 수필에서 이 인간을 전문 인용한 한편, 이병기는 「편지독본」에서 문례로 인용하고 있다. 정지용은 인간의 소장자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병기를 통하여 열람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지용, 「옛글 새로운 정(하)」, 『동아일보』, 1937.6.11; 이병기, 「편지독본」, 『여성』 4-9, 1939.9.

77) 이원조가 한 월평(2월 창작평, 『조선일보』, 1939.3.2)에서 『한중록』의 진위를 따지자 이병기는 곧 「전고진안론(典故眞贋論)」(『문장』, 1939.5)을 발표하여 반론에 나섰다.

78) 1938년 초 이병기는 「우리말을 찾으라」(『동아일보』, 1938.1.4)에서 조선시대 한글 문헌을 소개하면서 『한중록』의 이름을 거론한 바 있다. 이후 이병기는 『조선명인전』 제3권에 혜경궁홍씨의 생애를 집필하였고 「편지독본」에서는 혜경궁홍씨가 채제공에게 내린 인간을 인용하였다. 이병기, 「편지독본」, 『여성』 4-11, 1939.11.

79) 이 밖에 이태준은 편집자의 입장에서 『한중록』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한중록이 얼마나 훌륭한 고전이요, 얼마나 훌륭한 문장이란 것은 식자간(識者間)에 점점 평이 높아가며 있다. 이런 좋은 고전문학이 일반의 이목을 피해 묻혀 있었다는 것은 한중록의 또한 한사(恨事)였으려니와 아직도 이런 사장명품(死藏名品)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영구히 소멸되려는 작품을 발견해 다시 가치를 구(數)하는 것도 원작자만 못하지 않은 공로와 명예를 가질 것이다. 앞으로 이런 방면에도 꾸준히 적임자들을 동원시키려 한다.(이태준) 「여독」, 『문장』 1-3, 1939.4.

적된 바와 같이<sup>80)</sup> 필사본 『한중록』의 소장자인 이병기를 매개로 형성되었다.

이태준은 『문장강화』를 집필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선어 문장을 수집하고 조선어 문장의 역사화를 시도하였다. 특히 제9장은 ‘문장의 고전과 현대’ 즉 국한문혼용체가 성립되는 과정을 압축적으로 제시한 점에서 눈길을 끈다. 『문장강화』에 제시된 역사는 조선시대 내간체를 기점으로 시작되어 개화기의 다양한 시도와 이광수와 김동인을 거쳐 이상과 정지용으로 이르는 조선어 문장의 역사이자 문학의 역사였다. 이태준은 이광수를 언문일치의 완성자로 보았고 이상, 정지용, 박태원, 이효석, 김기림을 언문일치를 넘어선 ‘자기 문장’ 즉 ‘현대의 문장’을 개척한 작가로 높이 평가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언문일치의 문장이란 민중의 문장을 가리키며, 예술가의 문장과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태준이 생각하는 현대의 문장이란 무엇인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태준은 문체와 관련된 대목에서 스타달과 앙리 마시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문체 곧 스타일은 작품을 고상하게 만드는 동시에 근대문학을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서론에 해당하는 제1장에서는 후스의 팔불주의와 폴 모랑의 발언을 들어 기존의 문장 작법을 버리고 개인의 감각을 표현할 수 있는 새 문장론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태준은 개성적인 스타일의 확립과 관련된 논의를 일본어로 번역된 각종 출판물을 통하여 설명하였는데, 1930년대 조선에서는 이상과 정지용을 비롯한 구인회 작가들만이 전유할 수 있는 것이었다.

#### 4. 나오며

이 글은 1930년대 이태준의 문장 인식을 논의하기 위한 예비 작업으로 「글 짓는 법 ABC」와 『문장강화』의 특징과 수록된 문법의 출전을 정리하였다. 2

80) 배개화, 앞의 책, 293쪽.



장에서 이태준의 조선어 교육과 「글 짓는 법 ABC」의 문례 출전을 확인하였다. 그동안 이태준과 조선어학회의 관계는 표준어 사정 작업을 중심으로 논의되었으나 사정 위원회 활동은 신문사 학예부장을 역임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글 짓는 법 ABC」의 문례는 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 시가 개인마다 다른 감각을 가장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3장에서는 『문장강화』에 인용된 문범과 동서양 문예 비평문의 출전을 확인하였다. 「글 짓는 법 ABC」와 대조적으로 『문장강화』의 문례는 소설과 기행문을 비롯한 산문 위주로 구성되었다. 문범의 출전은 각종 전집 및 선집에서 인용된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이태준은 단행본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기간행물에서도 작품을 적극적으로 인용하였다. 이처럼 문범의 출전을 확인하는 작업은 서지학적 의미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태준의 문장 인식을 해명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문장강화』 문범 중에서도 이태준은 감각적이라는 이유로 이상과 정지용의 문장을 호평하였다. 이상과 정지용의 작품은 단행본에 수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태준은 문범으로 『문장강화』에 인용하였다. 특히 정지용의 문장은 시와 수필, 기행문, 추도문 등 다양하게 인용되었다. 이태준은 감각적인 동시에 맥락에 맞는 유일어로 대상을 새롭게 표현한 문장을 현대적인 문장이라고 보았는데,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개성적인 스타일의 확립에 관한 동서양의 문예 비평을 적극적으로 참조하였다.

해방 후 이태준은 『문장강화』를 바탕으로 『증정 문장강화』와 『신문장강화』를 펴내 새로운 시대에 맞는 문장과 문장 작법을 꾸준히 추구하였다. 이 글은 1940년에 출간된 단행본 『문장강화』로 이르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관계로 해방 후 변모 과정을 논의할 수 없었다. 『문장강화』와 비교하는 논의도 시도되고 있지만 해방기 국어 교재를 포함한 포괄적인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긴다.

■ 참고문헌

『동아일보』, 『매일신보』, 『문장』, 『사해공론』, 『삼천리』, 『시와 소설』, 『시대일보』, 『여성』, 『조광』,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중앙』, 『한글』, 『新青年』

상허학회 편, 『문장강화 외』 이태준문학전집 5, 소명출판, 2015.

이병기, 『가람 이병기 전집 일기』 IV,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이태준, 『황진이』, 동광당서점, 1938.

\_\_\_\_\_, 『문장강화』, 문장사, 1940.

\_\_\_\_\_, 『무서록』, 박문서관, 1941.

\_\_\_\_\_, 『시간문강화』, 박문서관, 1943.

アンリイ・マッシス, 那須辰造譯, 『小説論』, 金星堂, 1932.

久米正雄, 『文章の作り方』, 新潮社, 1937.

島村瀧太郎, 『新美辞學』, 東京専門學校出版部, 1902.

チェホフ, 内山賢次譯, 『チェホフ書簡集』, 春秋社, 1926.

バスカル, 由木康譯, 『バスカル冥想錄』, 白水社, 1938.

モウパッサン, 前田晃譯, 『ピエルとジャン』, 岩波書店, 1928.

『世界思想全集』 39, 春秋社, 1929.

『日本現代文章講座』 8, 厚生閣, 1934.

김일근, 『언간의 연구』, 건국대학교출판부, 1986.

문혜윤, 『문학어의 근대 - 조선어로 글을 쓴다는 것』, 소명출판, 2008.

배개화, 『한국문학의 탈식민적 주체성 - 이식문학론을 넘어』, 창비, 2009.

손유경, 『슬픈 사회주의자 - 미학적 실천으로서의 한국 근대문학』, 소명출판, 2016.

현순영, 『구인회의 안과 밖』, 소명출판, 2017.

『한글학회 100년사』, 한글학회, 2009.

速水博司, 『近代日本修辞學史』, 有朋堂, 1988.

강영미, 『조선동요연구협회의 동요운동 연구』, 『동방학지』 19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0.

구자황, 『근대 작문의 계보와 이태준의 『문장강화』』, 『한민족문학』 71, 한민족어문학회, 2015.

김기현, 『朝鮮文壇』 時節의 崔曙海 - 崔曙海의 傳記的 考察(4)』, 『우리문학연구』 2, 우리문화회, 1977.

문혜윤, 『조선어 문학의 역사 만들기와 강화(講話)로서의 『문장』』, 『한국근대문학연구』 20, 한국근대문학회, 2009.

\_\_\_\_\_, 『조선어 문장 형성 연구의 향방 - 『문장강화』 연구사』, 『상허학보』 42, 상허학회, 2014.

박영재, 『이태준 고전 담론과 『文章』의 낭만주의 - 내간체의 발견과 <춘향전>의 귀환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96, 민족어문학회, 2022.

박진숙, 『이태준 문학 연구 - 텍스트와 내포독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_\_\_\_\_, 『한국 근대문학과 미문, 이태준의 미문의식』, 『한국현대문학연구』 24, 한국현대문학회, 2008.

- \_\_\_\_\_, 『『신문장강화』의 시간과 이태준』, 박진숙 역음, 『신문장강화』, 현대문학, 2009.
- \_\_\_\_\_, 『이태준의 언어의식과 근대적 글쓰기의 場』, 『한국근대문학연구』 23, 한국근대문학회, 2011.
- 석형락, 『1930년대 후반 작고 작가 애도문의 서술 양상과 그 의미 - 김유정과 이상의 죽음에 제출된 애도문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71, 한국현대소설학회, 2018.
- 야나가와 요스케, 『이태준과 도자기 - 일본어 수필 『破片のな話(파편적인 이야기)』와 성북동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51, 상허학회, 2017.
- \_\_\_\_\_, 『이순옥 · 이동문학 · 개성(開城) - 1930년대 이태준의 삶과 그 주변』, 『상허학보』 54, 상허학회, 2018.
- \_\_\_\_\_, 『학예부장 시절의 이태준』, 『상허학보』 56, 상허학회, 2019.
- 와다 토모미, 『외국문학으로서의 이태준 문학 - 일본문학과와의 차이화(差異化)』, 『상허학회』 5, 상허학회 1999.
- 이혜령, 『이태준 『문장강화』의 해방 전/후 - 그 역사적 콘텍스트를 중심으로』, 상허학회 편, 『이태준과 현대소설사』, 깊은샘, 2004.
- 장문석, 『전형기 입화와 ‘조선’의 발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_\_\_\_\_, 『출판사 중앙인서관과 조선어문 출판물 간행』, 『한국학논집』 82,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21.
- 홍기돈, 『형극(荊棘)의 시대, 지사의 길』, 『작가세계』 71, 세계사, 2006.겨울.
- 황숙진, 『『피에르와 장』, 소설에 대한 모파상의 선언문』, 『코기토』 87,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9.
- 木越富士彦, 『『一語説』とその周辺』, 『北海道大學外國語・外國語文學研究』 13, 北海道大學文學部, 1965.

『문장강화』 문범의 출전<sup>81)</sup>

	저자	제목	출전
제1강	이광수	애육의 피안	『조선일보』(1935. 5. 1~12, 21) 『애육의 피안』(1937)
	김진섭	우송	『삼사문학』(1935. 4) 『현대조선문학전집』(수필기행집, 1938)
	조윤제	1장 1절	『조선시가지사』(1937)
	정지용	촉불과 손	『신여성』(1931. 11) 『정지용 시집』(1935)
	이기영	조춘	『신동아』(1936. 6)
		척독	지송옥, 『신편 척독대방』(1915)
		장화홍련전	이희승 편, 『역대조선문학정화』(1938)
제2강		기사	조선일보(1937. 9. 18)
	김두봉	머리말	『조선말본』(1916)
	김동인	감자	『조선문단』(1925. 1) 『감자』(1935)
	이태준	색시	『조광』(1935. 11) 『가마귀』(1937)
	최학송	담요	『조선문단』(1926. 5) 『문예독본』(1933)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조선중앙일보』(1934. 8. 1~9. 19)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1938)
	이상	날개	『조광』(1936. 9) 『현대조선문학전집』(단편집 중, 1938)
	박태원	거리	『신인문학』(1936. 1) 『현대조선문학전집』(단편집 상, 1938)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1938)
	박태원	천변풍경	『조광』(1936. 8~10, 1937. 1~9) 『천변풍경』(1938)
	박태원	천변풍경	『조광』(1936. 8~10, 1937. 1~9) 『천변풍경』(1938)
	이광수	단종애사	『동아일보』(1928. 11. 30~1929. 12. 11) 『단종애사』(1930)
	홍기문	문단인에 향한 제의	『조선일보』(1937. 9. 18~9. 26)

81) 원제목과 단행본에 수록된 제목이 다를 경우는 양쪽 모두 표시하였다.

이희승	사상 표현과 어감	『한글』(1937.10)	
	수호지	미상	
김기진	청년 김옥균	「심야의 태양」, 『동아일보』(1934.5.3~9.9) 『청년 김옥균』(1936)	
	유산가	이희승 편, 『역대조선문학정화』(1938)	
정지용	바다	『시원』(1935.12) 『정지용 시집』(1935)	
황진이	동짓달 가나긴 밤을	미상	
신자하 역	동짓달 가나긴 밤을	미상	
염상섭	전화	『조선문단』(1925.2) 『금반지』(1926)	
염상섭	제야	『개벽』(1922.2~6) 『견우화』(1924)	
양주동	한문학의 재음미	『조선일보』(1937.1.5~1.8)	
이병도	서화담 급 이연방에 대한 소고	『진단학보』(1936.4)	
문일평	전원의 낙	『조선일보』(1938.7.16)	
김기림	여행	『조선일보』(1937.7.27)	
주요섭	사랑 손님과 어머니	『조광』(1935.11) 『현대조선문학전집』(단편집 하, 1938)	
이광수	우덕송	『조선문단』(1925.1) 『문예독본』(1931) 『춘원 이광수 걸작선집』 2(1939)	
김소월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개벽』(1923.5) 『진달래꽃』(1925) 『삼천리문학』(1938.1)	
정지용	해협	「해협의 오전 2시」, 『카톨릭청년』(1933.6) 『정지용 시집』(1935)	
이상	산촌여정	『매일신보』(1935.9.27~10.01)	
정지용	다시 해협	『조선문단』(1935.7) 『정지용 시집』(1935)	
제3강	이개	시조	미상
	주요한	샘물이 혼자서	『학우』(1919.1) 『이름다운 새벽』(1924) 『조선명작선집』(1936) 『삼천리문학』(1938.4)
	김소월	가는 길	『개벽』(1923.10) 『진달래꽃』(1925) 『삼천리문학』(1938.1)

	옥중화	미상	
이광수	무명	『문장』(1939.2) 『이광수 단편집』(1939)	
제4강	어떤 학생	일기	미상
	어떤 학생	일기	미상
	어떤 학생	일기	미상
	모윤숙	일기	『삼천리문학』(1938.4)
	박영희	일기	『삼천리문학』(1938.4)
	유진오	일기	『삼천리문학』(1938.4)
	김안서	일기	『삼천리문학』(1938.4)
	모윤숙	일기	『삼천리문학』(1938.4)
	최정희	정적기	『삼천리문학』(1938.1)
	이병기	일기	미상
	모윤숙	일기	『삼천리문학』(1938.4)
	정인택	일기	미상
	체호프	체호프가 누이에게 보낸 편지	内山賢次譯, 『チェホフ書簡集』(1926)
	선조	언간	이병기 소장본
	어떤 학생	입학	미상
	어떤 학생	결혼 축하	미상
	백철	생일 초대 편지	『여성』(1938.7)
	최학송	최학송 씨가 조규원 씨에게 보낸 엽서	상허, 「독자의 편지」, 『문장』(1939.11)
	정지용	정지용 씨가 필자에게 보낸 엽서	이태준, 「설중방란기」, 『시와 소설』(1936.3)
		결혼 청첩	미상
		추도회 청장	미상
	방정환	어린이 찬미	『신여성』(1924.6) 『신여성』(1931.8) 『조선중앙일보』(1934.5.6) 『중앙』(1936.5)
	주요섭	미운 간호부	『신동아』(1932.9)
이병기	매화옥	미상	
이광수	인생의 은혜와 사와	『대조』(1930.7)	
이원조	눈 오는 밤	미상	

이광수	의의 인	『조선문단』(1925.2) 『삼인시가집』(1929)
장영숙	지변의 신화	『부인공론』(1936.7) 『현대조선어류문학선집』(1937)
	기사(함남 북청에서)	『동아일보』(1932.1.5)
	기사(홍등가에)	『조선일보』(1937.6.16)
이은상	서	『탐라기행』(1937)
유광렬	행주성 전적	「권율의 전적 탐방 - 일요의 일일을 행주산성에」, 『조선일보』(1931.7.2~7.7) 『문예독본』(1933)
정인섭	에급의 여행	「에급의 여수」, 『사해공론』(1937.1) 『현대조선문학전집』(수필기행집, 1938)
이상	산촌여정	『매일신보』(1935.9.27~10.1)
이광수	금강산 기행	「금강산 유기」, 『신생활』(1922.3~6) 『현대조선문학전집』(수필기행집, 1938) 「금강산 유기」, 『춘원 이광수 걸작선집』 1(1939)
안재홍	춘풍천리	『조선일보』(1926.4.20~4.21) 『현대조선문학전집』(수필기행집, 1938)
박종화	경원선 기행	『청산백운집』, 『삼천리』(1935.10)
정지용	서왕록	『조선일보』(1938.6.5~6.7)
김기림	고 이상의 추억	『조광』(1937.6)
이광수	봉아 제문	『삼천리』(1935.3)
	한글 철자법 시비에 대한 성명서	미상
	사설(일초일목예의 예)	『조선일보』(1937.4.30)
	권두언(인생)	『신동아』(1936.6)
최재서	비평의 형태와 기능	『조선일보』(1935.10.12~10.20) 『문학과 지성』(1938)
안재홍	독서개진론	『학등』(1935.11)
김진섭	창	『문학』(1933.12) 『현대조선문학전집』(수필기행집, 1938)
이상	권태	『조선일보』(1937.5.4~5.11)
김상용	그림달	『중앙』(1936.4)
변영로	시선에 대하여	「토막 생각」, 『개벽』(1922.11) 「토막 생각」, 『조선의 마음』(1924) 『문예독본』(1931)

	양주동	다락누 야화	『조광』(1936.10) 『현대조선문학전집』(수필기행집, 1938)
	정지용	비	『조선일보』(1937.11.7-9)
	최재서	정가표 인간	『조선일보』(1937.11.26) 『문학과 지성』(1938)
제5강	길재	오백년 도움지름	미상
	가도	제이응유거	미상
제6강	이상	권태	『조선일보』(1937.5.4~5.11)
	김황원	대동강	미상
	이광수	오동	『동아일보』(1928.10.26) 『인생의 향기』(1936) 『현대조선문학전집』(수필기행집, 1938)
	나도향	그믐달	『조선문단』(1925.1) 『현대조선문학전집』(수필기행집, 1938)
	박태원	축전 무용의 변	『문장』(1939.5)
	양주동	노변잡기	『조광』(1937.1) 『현대조선문학전집』(수필기행집, 1938)
	주요섭	미운 간호부	『신동아』(1932.9)
	변영로	시선에 대하여	「토막 생각」, 『개벽』(1922.11) 「토막 생각」, 『조선의 마음』(1924) 『문예독본』(1931)
	이여성	갯	『문장』(1940.1)
	김용준	머리	『문장』(1940.1)
	염상섭	표본실의 청개구리	『개벽』(1921.8~10) 『견우화』(1924)
	강경애	어둠	『여성』(1937.1~2) 『현대조선여류문학선집』(1937)
	이선희	계산서	『조광』(1937.3) 『현대조선여류문학선집』(1937)
	이상	산촌여정	『매일신보』(1935.9.27~10.1)
	최명익	무성격자	『조광』(1937.9)
	정지용	수수어	『조선일보』(1937.2.11)
	정지용	비	『조선일보』(1937.11.7)
	최명익	역설	『여성』(1938.2~3) 『현대조선문학전집』(단편집 하, 1938)



	이상	권태	『조선일보』(1937. 5. 4~5. 11)
	어떤 학생	가을비	미상
	어떤 학생	가을비	미상
		장화홍련전	이희승 편, 『역대조선문학정화』(1938)
		춘향전	이희승 편, 『역대조선문학정화』(1938)
	정지용	비	『조선일보』(1937. 11. 7~9)
	정지용	녹음 애송시	『조선일보』(1938. 5. 21)
		춘향전	이희승 편, 『역대조선문학정화』(1938)
	채만식	정거장 근처	『여성』(1937. 3~10)
	홍명희	입격정	『입격정』 1~4(1939~1940)
	정지용	평양	『문장』(1940. 2)
	제7강	현진건	지새는 안개
최명익		심문	『문장』(1939. 6)
이병기		건란	미상
정지용		체화	『동아일보』(1938. 8. 17)
이상		권태	『조선일보』(1937. 5. 4~5. 11)
정지용		때까지	『동아일보』(1938. 8. 19)
정지용		구름	『동아일보』(1938. 6. 5)
박태원		윤초시의 상경	『만인의 행복』, 『가정지우』(1939. 4~6) 『박태원 단편집』(1939)
박종화		금삼의 피	『매일신보』(1936. 3. 20~12. 29) 『금삼의 피』 상·하(1938~1939)
이효석		돈	『조선문단』(1933. 10) 『이효석 단편집』(1939)
제8강	유길준	자서	『대한문전』(1909)
	김동인	태형	『동명』(1922. 12. 17~1923. 4. 22) 『감자』(1935)
	박태원	아름다운 풍경	『백광』(1937. 5) 『현대조선문학전집』(수필기행집, 1938)
	김진섭	체루송	『삼천리문학』(1938. 4)
	안재홍	서문	『백두산 등첩기』(1931)
	민태원	청춘 예찬	『별건곤』(1929. 6)
	이병기	승가사	『중앙』(1936. 6)

	홍명희	온돌과 백의	「사회삼척」, 『동아일보』(1924. 10. 7) 「사회삼척」, 『문예독본』(1931)
	정인보	고산자의 대동여지도	『동아일보』(1931. 3. 9~3. 10) 『문예독본』(1933)
	나도향	그믐달	『조선문단』(1925. 1) 『문예독본』(1931)
	이선희	곡예사	『신가정』(1934. 4) 『현대조선여류문학선집』(1937)
제9강		춘향전	이희승 편, 『역대조선문학정화』(1938)
	혜경궁 홍씨	한중록	이병기 소장본 『문장』(1939. 2~1940. 1)
	선조	언간	이병기 소장본
		제문	이화여자전문학교 소장본
		제침문	이희승 편, 『역대조선문학정화』(1938)
	이중환	택리지	미상
	김두봉	머리말	『조선말본』(1916)
		편집자의 말	「거인국 표류기」, 『소년』(1908. 11)
	이광수	흙	『동아일보』(1932. 4. 12~1933. 7. 10) 『흙』(1933)

# 李泰俊『文章講話』(1940)研究

－ 文範の出典を中心として－

柳川陽介\*

本稿は1930年代李泰俊の文章認識を論じるための予備作業として、「文章の書き方ABC」と『文章講話』の特徴と、収録された文範の出典を分析した。第2章では、李泰俊の朝鮮語教育歴と「文章の書き方ABC」の文例の出典について確認した。従来、李泰俊と朝鮮語學會の關係は標準語査定作業を中心に論じられたが、査定委員会の活動は新聞社の學藝部長を歴任したため可能であった。「文章の書き方ABC」の文例は詩を中心に構成されているが、その理由は詩が個人ごとに異なる感覺を最も忠実に表現できるためであった。第3章では『文章講話』に引用された文範と東洋と西洋の文芸批評の出典を確認した。「文章の書き方ABC」とは対照的に、『文章講話』の文範は小説と紀行文をはじめとする散文を軸に構成されていた。文範の出典はそれぞれ全集及び選集から引用された場合がしばしばみられた。しかし李泰俊は単行本にばかり依存せず、定期刊行物からも作品を積極的に引用した。このように文範の出典を確認する作業は、書誌学的な意味ばかりではなく、今後李泰俊の文章認識を総合的に解明する上でも大きく寄与するだろう。

[キーワード] 李泰俊, 「文章の書き方ABC」, 『文章講話』, 『文章』, 朝鮮語學會,  
標準語査定委員會

논문투고일: 2023년 10월 23일 || 심사완료일: 2023년 11월 6일 || 게재확정일: 2023년 11월 6일

\* Saitama University Faculty of Liberal Arts, Assistant Professor

